

MONTHLY MAGAZINE 통권 239호

지방시대

전국매일신문 자매지 www.jeonmae.co.kr

2
2020



커버스토리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기회의 땅’ 남양주
경제지도 새판짠다**

인물열전 갈대 빗자루 최고의 장인 1호 ‘김진두 명장’

세월을 엮어 근심을 쓸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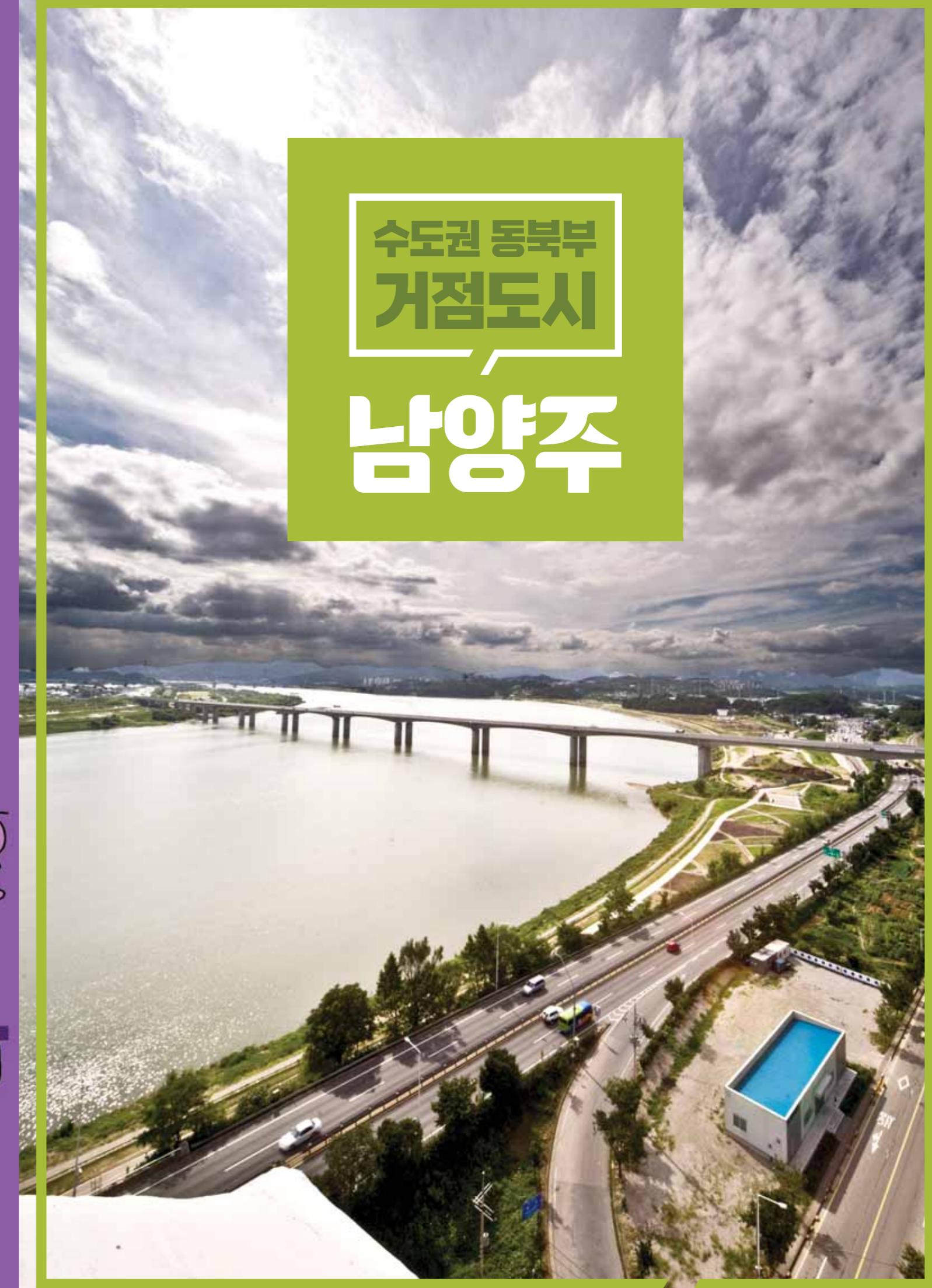
기획특집 부강진주 프로젝트 ‘일사천리’
진주역, 문화예술공원으로 변모

순천아랫장 순자씨의 이중생활



순자씨가 궁금하면 순천 아랫장으로 오시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제주여행 · 단체특가 (2박3일) 259,000원

주요관광지 : 산소힐링피아·인체의 신비·거울미로 박물관, 조랑말 승마체험,
칠십리 유람선, 산굼부리, 석부작 테마파크, 일출랜드, 오설록,
해피타운 오토바이쇼, 카멜리아힐, 성읍민속마을 등....

식 사 : 회정식, 고등어조림, 둠배고기, 제주 흙돼지 불고기, 호텔조식

단체조건 : 10인 이상 · 출발일 일, 월, 화, 수, 토요일

제주 대주관광여행사
064-749-2135
010-4440-2135



커버스토리 6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올해 남양주 경제지도 새판 짠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남양주의 경제지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경자년 시작과 함께 남양주 경제지도의 판을 새로 짜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번호 문화 라08522
발행인 박종필
편집인 겸 대표이사 신용대
발행처 전국매일신문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
(수진2동 3011번지 예동빌딩 4층)
⑧ 461-806
대표전화 755-5600

구독신청문의
본사 (031)755-5600, 5622
서울총판 (02)749-0922
인천총판 (032)751-1478
경기총판 (031)410-2595
 북부총판 (031)909-1717
 의정부분실 (031)832-1411
강원 춘천총판 (033)251-4866
 원주총판 (033)746-5516
대구총판 (053)471-1111
경북총판 (054)841-1111
경북 구미총판 (054)458-1111
 포항총판 (054)614-3655
경남총판 (055)761-7882
대전총판 (055)586-4005
충남서북부총판 (041)668-3722
 서부총판 (041)936-5291
 충북총판 (043)255-8877
 호남총판 (061)742-8181
 서부총판 (061)284-9781
 동부총판 (061)663-6200
제주총판 (064)723-1950

인물열전



12 순천시 갈대 빗자루
최고의 장인 1호 ‘김진두 명장’

피플&피플

- 20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24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34 정동균 경기 양평군수
52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60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

지방시대

- 28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건설 박차
30 용인시민 10명중 7명 “용인은 살만한 도시”
32 ‘수원시티투어’ 확 바꾼다
36 서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분주
38 서해안권 유일 ‘태안 해양치유센터’ 청신호
40 광명시, 새해 다양한 일찬정책 추진
48 강남구, 지자체 최초 스타일브랜드 탄생
50 송파구민 10명중 9명 “송파구 살기 좋아”
54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 자체 개발
56 광진구, 마음의 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건립
58 유덕열號 생활속 체감행정 더 촨촘해졌다

기획특집



16 부강진주 프로젝트 ‘일사천리’



“올해 남양주 경제지도 새판 짠다”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기회의 땅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기업유치로 16만개 이상 일자리 만들어 낸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남양주의 경제지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경자년 시작과 함께 남양주 경제지도의 판을 새로 짜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남양주시는 인구 7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심 권역 없이 읍면동별로 흩어져 있는 다핵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내부 지역 연계 도로망이 미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GB 등의 중첩 규제가 지역 간 서비스 인프라 및 산업구조의 균형 발전을 차단해 자족기능을 상실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조 시장이 취임 이후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범낮으로 뛰어다니며 3기 신도시 유치, GTX-B 예타 통과 등의 굵직한 성과들을 만들어 내면서 남양주는 도시 발전史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으며, 그간의 눈부신 성과들은 남양주를 기회의 도시, 일자리 혁명의 메카로 거듭나게 해줄 성장의 발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2배 규모 (140만m²)의 왕숙 1지구 내 자족 용지에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정밀화학 분야 등의 앵커기업과 해외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이

를 통해 16만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남양주를 직·주균형 자족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원은 인생多모작센터로 개편하여 평생학습과 취·창업 교육기능 연계로 청년,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 전 세대·계층에게 완벽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생다모작 허브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존센터로 조성하며, 도심형 캠퍼스인 한국폴리텍대학 기술교육센터, 융합기술교육원 등을 유치하여 하이테크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보다 한발 앞선 정책추진을 통해 남양주는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의 선도자이자 그동안의 평생학습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도 꼼꼼히 챙긴다. 시는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 창업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Youth Start-up Campus N(청년창업복합단지)을 조성해 청년들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평내동 660번지 평내호평역 일대에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1,434m²)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일자리센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카페, 성장 초기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

로 구성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고, 청년광장은 다목적 야외공연장과 오픈형 플리마켓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

일자리와 더불어 지역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발행규모도 212억 원(일반발행 120억 원, 정책발행 9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4% 이상 확대해 역외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둔다.

'교통이 곧 복지다' 철도교통의 완성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완성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퍼즐

지난해 8월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남양주에 본격적인 철도교통의 시대가 열렸다. 당시 다른 노선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치판에서 잔뼈가 굽은 노련한 명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3기 신도시 왕숙지구를 구원투수로 등판시키면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냈다.

GTX-B는 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80km 노선으로 사업비만 5조7천억원에 이른다. 완공되면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17분, 인천 송도까지는 50분이면 도달한다. 특히 정자역 14개 중 4개를 남양주가 차지하면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발전에 커다란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무엇보다도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남양주의 지리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한 시장은 앞서 12기 신도시가 입주 후 지금까지도 교통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 이후 국회·정부부처 방문 3기 신도시 유치·GTX-B 예타통과 등 굵직한 성과 수도권 동북부 철도교통의 완성·공정한 행정 실현 왕숙신도시 기업유치로 일자리 16만개 이상 창출

도 383호선 확장 등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 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반영된 부분과 아쉽게 포함되지 못한 부분까지 두루 쟁기면서 지역교통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수도권 동북부 허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남양주를 다니다 보면 핑크색 버스가 자주 눈에 띈다. 바로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버스'다.

땡큐버스는 다행으로 분포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내부 노선연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금곡동 남양주시청을 중심으로 지역 어디나 한번에 갈 수 있도록 만든 교통약자를 배려한 남양주식 준공영제다.

남양주는 면적(458km²)이 넓고 인구도 70만이 넘는 전국에서 손에 꼽는 규모의 도시다. 그에 반해 내부를 순환하는 지역 간 도로망은 매우 열악하고 비 수익노선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도 취약해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 시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더 나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 학생, 부녀자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선물할 수 있을지를 관련 공직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 그런 고생 끝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땡큐버스다.

땡큐버스가 지난 해 12. 24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시민들은 매번 시청을 방문하기 위해 2~3번 버스를 갈아타는 수고를 덜게 되면서 시청이 내 집 앞처럼 가까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또한 매달 지갑을 얇게 만든 교통비도 눈에 띄게 절감되면서 만족감도 배가 되고 있다.

시는 올해 3월까지 8개 노선에 땡큐버스 86대(▲와부권역 1개 노선 9대 ▲진접오남권역 3개노선 34대 ▲다산권역 1개 노선 8대 ▲별내권역 3개노선 35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내버스의 기능에 보고 즐기는 문화관광의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차근차근 챙긴다. 사릉역(사릉)-금곡(역사광장체험관)-평내(궁집)을 잇는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지역 상권 주변의 도로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선, 도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확대해 지역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상인대학은 프로그램을 보다 업그레이드해 실습과 사례위주로 연 2회 운영하며, 현장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시민들에게 개방한 시청 옆광장에서 오는 3월과 9월에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매를 위한 '남양주 땡큐 세일 페스티' 행사를 열릴 예정이며, 프리마켓 등도 꾸준히 개최하여 청년 기업가, 소상공인 등의 판로개척과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도입된 남양주시 지역화폐 'Thank You Pay-N'도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혜택도 보다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들을 위해 집 앞 가까운 체육문화센터, 지역 농·축협 등 오프라인에서 지역화폐 카드를 구입하거나 충전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즐거움까지 선사할 트롤리버스도 5월까지 10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트롤리버스는 주말에는 시티투어 노선과 연계하여 남양주시의 색다른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 시장은 “땡큐버스는 이름 그대로 감사함의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교통불편을 감내하며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고맙고, 땡큐버스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운수업체와 공직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제 마음과도 맞닿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 행정의 영역에 공정의 DNA 심어...

이석영 광장, 하천정원화 사업에 공정의 가치 담는다

2020년이 독립운동사에 귀중한 승리로 기록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광한 시장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잊혀져가는 모습에 늘 안타까워했다. 이에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깊이 고민했으며, 그 결과물인 이석영 광장을 올해 8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해 금곡동 홍유릉 일대에 조성하는 이

석영 광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바쳐 청산리 전투 승리의 주역들을 배출한 이석영과 6형제를 기념하는 광장과 역사체험관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8.15 광복절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조 시장의 바람대로 이석영 광장이 시민들이 지난 역사를 옮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소양도 쌓을 수 있는 남양주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이자 공정한 역사 인식의 장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공정을 바로 세우는 남양주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남양주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준 바 있다. 담당국과장 및 직원들과 합동워크숍, 사례견학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상인들과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1:1 면담 등을 통해 철거 필요성 및 시의 철거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설득한 끝에 지난 해 3월 수락산 청학천 계곡의 불법음식점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7월까지 팔현천, 월문천, 구운천에 설치한 평상, 천막 등 불법구조물 등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이는 수십년간 계곡과 하천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해 배짱영업을 해온 관행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침묵의 행정에 경종을 울린, 그야말로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 얻어낸 값진 성과이자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운 사건으로 기록된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공정의 가치는 이후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침묵을 깨고 앞다퉈 하천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작하게

된 마중물이 됐다.

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과 도심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리조트를 가지고 않고도 내 집 앞에서 리조트 수준으로 정비된 하천을 만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산책로 등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온전한 힐링 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최근 들어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지자체들이 골치를 써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난개발을 빼놓을 수 없다.

남양주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난 외곽지역에 산지나 농지 등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장들과 전원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무질서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지하철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수요를 미리 파악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와 농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여 무차별적으로 파헤치고 깎아내면서 아이들과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은 어느새 푸르른 빛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조 시장은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자연을 최대한 깨끗하게 보존해서 돌려줄 책무가 있음을 늘 강조해왔다.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금의 이런 난개발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저지르는 현

재 우리 세대의 부당한 반칙이다.

이에 시는 난개발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14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경사도 18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조 시장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 시장은 올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는 교통, 일자리 등 그간 추진한 정책들이 어우러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가 골목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시민들의 삶의 온도가 확 달라지는 즐거운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조 시장은 올해 시작과 함께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시장의 바람대로 70만 남양주 시민들이 ‘2030 경제문화 중심 녹색자족도시’, ‘2050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라는 남양주의 비전 실현을 피부로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시대

김갑진 기자

갈대빗자루 외길인생
최고의 장인 1호
'김진두 명장'

세월을 엮어 근심을 쓸어내다

-순천만 습지가 품고 있는 마을, 전남 순천시 도사동 대대 마을에서 태어나 60평생
을 갈대 빗자루를 만들며 옛 전통의 맥을 고수하고 있는 장인 김진두 씨(65), 순천시
가 지난 1917년 '갈대 빗자루 최고의 장인 1호'로 선정한 김진두 명장을 찾았다.-



부친 유지 받들어 45년간 명맥 잇기 혼신
길고 긴 제작과정에 ‘끈기·인내심’ 요구
2017년 市 제1호 빗자루 최고의 장인 선정
전통명맥 유지할 후계자 양성 대책마련 절실



● 세월 속에 사라져가는 순천만 갈대 빗자루

김진두 장인이 태어나 평생을 갈대밭과 함께한 이곳, 순천만 갈대밭은 순천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돼 순천만습지에 이르기까지 10리길 5.4km에 이른다.

벼파의 다년생인 갈대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汽水)에서 가장 왕성한 번식력을 보인다. 원래 풀 이름인 ‘갈’과 풀의 줄기를 뜻하는 ‘대’가 합쳐져 만든 이름으로 옛날에는 초가지붕 재료, 갈대밭, 김밭, 갈대빗자루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돼 왔다.

순천만 갈대군락은 누군가가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동그란 원형군락을 이루며 형성,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사랑을 받고 있다.

● 순천만 갈대의 변신, 갈대 빗자루

순천만 습지 인근마을(대대·안풍) 주민들은 갈대꽃이 피어 쉐기 전인 7월 백중을 전후해 피기 시작한 ‘오사리’라 불리는 부드럽고 찰진 갈대꽃을 뽑아 정성껏 말려 오동나무 함속에 보관하다 농사일이 한가한 농번기에 주민들이 빗자루를 만들어 순천 웃장과 아랫장, 타 지방까지 내다 팔아 당시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 빗자루는 마당을 쓸던 대나무로 만든 대빗자루, 수수로 만든 부엌 빗자루, 방빗자루는 대부분 벗 집으로 만든 벼 빗자루였는데 갈대 빗자루는 방 빗자루로서는 최고급 빗자루로, 이사 집 선물, 명절 최고의 선물로 집집마다 자랑하듯 마루기둥에 쓰레비트자루 만드는 기법을 터득, 45년 동안 갈대 빗자루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팔던 유명 빗자루는 세월이 가면서 나일론 제품과 진공청소기 등장으로 사라져 가고 이제 장인 갈대 빗자루의 제작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장비는 단순하다. 그만큼

김진두 씨의 장인정신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부친 유지 받들어 45년 동안 빗자루 만들기에 혼신

갈대빗자루를 만들고 있는 장인 김진두 씨는 어렸을 적부터 손재주를 타고 났다. 마을 동장을 지내신 부친께서 손재주를 타고 난 아들에게 1970년 초 “빗자루를 만들어보라”며 빗자루를 만들고 있는 몇 분을 소개했다.

김 장인의 부친은 이렇듯 차차 사라져가는 갈대 빗자루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에게 전수받기를 권유, 아들인 김 장인은 빗자루 만드는 기법을 터득, 45년 동안 갈대 빗자루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갈대 빗자루의 제작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장비는 단순하다. 그만큼

손을 이용한 작업으로 끈기 있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7월 백중 무렵 뽑아 그늘에 말린 갈대 오사리를 조리개와 실과 끈을 잘라주고 꿰매는 가위, 바늘, 망치와 자루, 마감을 하기 위한 낫 등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고작이다.

어른 엄지손가락 굵기만큼의 묶음을 갈대 기둥을 함께 넣어 실과 나일론 끈으로 둑여 묶음을 만든다.

갈대 빗자루의 크기에 따라 수십 개의 오사리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뒤 갈대 기둥을 모아 비틀어 모양을 완성한 후 자루 중간 중간을 색색의 실과 나일론 끈으로 묶어 견고함과 장식을 더한 섬세한 손길을 걸쳐 갈대 빗자루가 탄생한다.

이러한 김 장인의 장인정신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민예품 공모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순천시 경진대회서 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2017년 순천시가 선정한

‘제1호 빗자루 최고의 장인’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김 장인은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귀감을 사오는 등 그동안 교통부장관상 전남도지사상, 적십자사총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장인은 현재 4월부터 11월까지 순천만습지센터에서 관내 초·중학생, 일부 관광객을 상대로 갈대빗자루 만들기 체험학습을 보조공 3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전통 명맥 유지할 후계자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돼야

“갈대꽃 빗자루는 쓸리기도 잘 쓸려 다른 빗자루는 저리 가라였다”며 “나일론 빗자루와 진공청소기가 나오기 전에는 최고의 빗자루로 명성이 자자했다”는 김 장인은 “마루에 갈대 빗자루하고 쓰레받이가 집집마다 걸려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장인은 “이제는 순천시 관광특산품으로, 또는 순천시가 외국을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가져가 전달되는 등 수요처가 극소수로 이제 누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멀어져 사실상 명맥이 끊긴 셈”이라며 “갈대 빗자루의 전통 맥의 계승을 잇기 위한 후계자 양성에 순천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이어 김 장인은 “현재 3명의 보조공이 4월부터 11월까지 함께 갈대체험학습 등에서 빗자루 만들기 힘을 쏟고 있지만 매월 1인당 수당이 고작 24만 원으로 이들 마저 꺼리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순천만 습지 갈대밭 관광객 유치에 쏟아오던 행정력을 이제 순천만 주변 마을 주민들의 옛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갈대 빗자루 민속공예품에 대한 특화사업 대책마련에도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지방시대 서길원 기자

과거 교통의 요충지 진주역 문화예술공원으로 재탄생



▲조규일 진주시장

부강진주 프로젝트 '일사천리'

경남 진주시는 부강 진주 프로젝트의 하나로 천전동 진주역 철도부지 일대를 복합 문화예술 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주역은 1923년 삼랑진-진주 간 철도 개통 이후 2012년 진주역사를 이전하기 전 까지 진주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적·물적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는 추억의 뒤편에 남아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해 진주역사 이전 이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본격적인 개발 방안이 논의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시의 진주역 일원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주민,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 11월 18일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에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고, 진주역 개발에 지역주민뿐 아니라 진주시민들 역시 호응을 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천전동 진주역사 부지 일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진주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는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동시에 심신을 힐링하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외지인에게는 역사·문화·예술 도시 진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진주시는 남강을 중심으로 북측은 진주성공원, 남측은 진주역 복합 문화예술 공원, 서쪽은 진양호공원, 동쪽은 월아산 산림휴양공원으로 관광휴식 공간이 형성되게 된다.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1950억 원이 투입되며 진주역 일원 14만m² 규모에 올해 시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젊음의 문화거리, 미래지향적 국립진주박물관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진주역사 건물은 근대문화유산(등록문



1950억 투입 2025년까지 재생프로젝트 추진…시민엔 ‘힐링을’ 관광객엔 ‘진주의 면모를’ 옛 진주역~망경동 남강변 약 4.5km 구간 ‘생활문화 특색있는’ 걷고싶은 문화거리로 조성

화재 제202호)인 진주역 차량정비고와 전차대를 연계하여 철도역사 전시관, 미술관, 체험 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주변 맹꽁이서식지는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으로 어

린이의 생태학습장 마련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을 시작해 진주역사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첫발을 디딘다.



● 젊음의 문화거리 조성

진주역에서 망경동 남강변까지 약 1.5km 구간은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이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된다.

시는 이곳을 진주의 문화 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이 꽂피는 거리가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성을 간직하면서 생활 문화적 특색이 남아 있는 거리, 진주의 예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작품 활동을 하는 진주문화 창작소가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

진주가 낳은 유명 예술가, 문화인들의 작은 박물관, 전시관, 생가 재현, 짚은이들이 쉴 수 있는 카페거리 등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도 만들어진다.

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진주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진주성→남강 다목적 문화센터→복합 문화예술 공원→국립진주박물관→볼래로 문화거리(가좌천)→신진주역을 잇는 관광벨트 진주로드(Jinju Road)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주역사 부지의 북단에서 진주 남강변으로 곧바로 이어지길 수 있도록 길이 약 300m의 도로도 새로이 개설해 모든 길이 통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성과 남강 다목적 문화센터,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연결되는 진주로드(Jinju Road)는 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축’을 형성해 역사문화도시 진주의 상징이 될 ‘공간의

축’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래지향적 국립진주박물관 건립

현 국립진주박물관은 1984년에 개관한 경남도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임진왜란과 서부 경남지역에 관련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 내에 위치해 시설 확장이 어렵고, 관람객 접근성과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국립박물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립진주박물관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와 수차례 부지 협의 결

과, 지난해 5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면담 등을 통해 건립 방향을 공유했고, 6월 3일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진주시 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진주역 일원에 새로이 건립될 국립진주박물관은 시민들이 두루 찾아 역사를 배우고 레저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임진왜란의 생생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임진왜란 역사관과 함께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진주) 역사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도 만들 계획이다. 박물관 건립은 올해 시작해 2025년 준

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450억 원 정도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한편 시는 진주역 인근에 이전 건립될 국립진주박물관의 부지를 제공하며, 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지규모는 현재 박물관 부지의 두 배 정도다.

부대시설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작은 도시 숲을 만들고, 북 카페와 시민광장도 조성된다.

● 남강, 유등테마공원, 진주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진주역 철도부지는 남강까지 이어지는

1.5km의 문화거리와 유등테마공원으로 가는 소망의 거리,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주역 복합문화공원~소망의 거리~유등테마공원~진주성~남강~문화거리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광코스 구축으로 이어지는 체류형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역 일원의 ‘복합 문화예술 공원’ 조성 사업은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더불어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 진주 건설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진주가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제작: 시민 대

적극행정 보령시, 미래먹거리 선점



● 지난해 시정 주요 성과는

지난해 보령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긴장과 태풍 링링 등의 재난,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협 등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 시에 더욱 빛을 발한 행정을 펼쳐왔다.

지역현안 해결과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 등 전방위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

로 5년 연속 정부예산 3000억 원 이상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을 획득해 충남도 내 기초단체 중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보령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 계획에 ‘미래대비항만’, 보령선, 장항선 철화사업 등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아울러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수합병(M&A) 절차를 이행 중인 대천리 조트는 일부 반대의견에도 10% 수준의 추가 출자로 공익적 가치와 지역안정성을 도모했고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국도77호 해상교량 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꼽은 시정 최대 뉴스

로는 보령아산병원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및 소아전용 병상 확보가 선정됐는데 응급 전문의 배치로 전원(타 지역 병원 이용) 환자가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고 소아청소년과 외래환자가 33% 증가하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이 대폭 개선돼 시민들의 높은 만족감을 보여 왔다.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 넣을 두산인프라



코어 보령시협장도 준공돼 연간 3000여 명의 국내 및 해외 바이어와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도77호 개통에 발맞춰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양레포츠와 해양문화 관광 등 범부처 해양관광 시범지구 유치를 추진하며 공공편익시설 및 관광 개발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해양관광의 랜드 마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위험시설로 인한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대 및 기업용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해 가구당 최대 매월 8845원, 기업은 최대 25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은

올해는 현 정부의 임기 후반기 돌입과 제21대 국회출범 등 정치적인 변동요인이 큰 변수를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선 7기 보령 시정도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한일무역 갈등, 보호주의 및 저성장 기조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전반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및 불경기 여파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지탱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서민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사회문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 확대로 공동체의식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먼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43%인 97개가 소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보령도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소멸위기 대응 총력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응천일반산업단지 분양 총력 및 투자기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기업유치를 통한 살맛나는 시민경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국도77호 개통을 계기로 원산도에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웰니스길을 조성하는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개발해 나가고 대천항을 거점형 마리나, 해양레저 등 해양레저 복합단지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적극행정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

보령은 지난해 연말 정부로부터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적극행정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지방 차원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을 통과시키며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제도화 했다.

보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적극행정

미래형 자동차 튜닝 생태계 산업 선도 국제 수준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등 해양·도서개발로 '미래 먹거리' 선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 작년 결실 발판삼아 '미래보령' 건설

보령특별시'를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으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왔다.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는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타파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및 법제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자체 평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와 개인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원산안면대교가 지난해 12월 개통되어 서해안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도77호 타당성 재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통행객은 1740만 명(2022년), 1일 교통량은 9518대(2021년), 1일 최대 이용객은 1만973명, 1일 체재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예상되는 등 접근성 개선에 따른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혼잡, 쓰레기 발생 급증, 먹거리·숙박시설 등 부족을 대비하고 국도77호선 개통이후 관광객 이용 패턴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도에 관광단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확충, 공영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등 공공 편익시설 사업과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어구어망 수선장 마련 등 도시 미관 개선과 대중교통 노선운행, 여객선 운항 등 교통 편의대책 마련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의 중심이 될 사창 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해수의 탁도가 낮아 해양레포츠 체험장으로 최적이고 국도77호 완공 및 서해내륙 고속도로, 철도 개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대전권, 전라권이 2시간 이내로 확보됨에 따라 서해안의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곳에는 ▲실내서핑·스쿠버, 해양레저 안전체험장,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 센터, 해양벤처기업 지원센터 등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플라이보드, 플라잉피쉬, 튜

브스키 등 동력 해양레포츠 시설 ▲웰니스 산책길 및 해상공연장 등이 들어서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전거, 전기차, 수소버스 운행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해양·도서 개발 등 미래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천항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등 1200억 원을 투입해 거점형 마리나와 해양레저 등을 조성하는 해양레저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스포츠의 꽃인 요트 엘리트 육성 및 30명이 넘는 국가대표 배출, 전국체전 2회 종합우승 등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머드축제 브랜드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 대비 효과를 창출하는 가성비까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5개 섬이 선정돼 국비 219억 원을 포함한 312억 57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돋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과 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섬은 장고도와 고대도, 호도 등 어촌뉴딜 3개 사업과 효자2리, 삽시도 등 2개 기항지 개선 등 모두 5개 사업에 달한다. ▲바닷길이 열리는 섬 안의 섬 장고도는 명장섬 바닷길 및 해송 어울림 정원 조성, 선양장 구조 및 접안시설 개선 ▲신이 사랑한 섬 고대도는 방파시설 보강 및 어망어구보관 수리장 설치, 칼 귀 클라프 해양친수공원 및 기념조망 데크 조성 ▲여우가 속삭이는 은빛 휴양섬 호도는 명품 해안데크 및 어우이야기 둘레길 조성 ▲‘오(五)손도(島) 손 다섯 형제섬 이야기’인 효자2리와 ‘삽시다(多)움’ 삽시도는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사진: 시민

이건영 기자

‘평화통일 중심’ 의정부시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가꾼다

만나보았습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새해는 경기북부 평화통일의 중심도시로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의정부지방 법원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들이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하며 2020년은 경기북부 평화통일의 중심도시 의정부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건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총 1조 7000억 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해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새해는 핵심 사업에 대한 조성 토지 선수분양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K-POP 클러스터, 테마랜드,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군기지 8개 가운데 아직 3개가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캠프 잭슨은 문화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텐리는 융·복합형 주거단지인 액티브시니어시티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국제적인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오동 유류저장소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 직업체험관인 나리벡시티를 준비하고 있다.

● 의정부시를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의정부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를 추진

● 내년까지 '복합문화융합단지' 부지 조성 완료 녹화·공공시설 개선 185개사업 390억 투입 GTX 조기 착공 등 시민중심 교통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스포츠 등 생활SOC 추진 포용적 복지·안전한 환경 '시민 삶의 질'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2021년까지 185개 사업, 총 390억원을 투입해 녹화와 공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녹화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정원 콘테스트, 사진전 개최와 생태하천 정비 및 테마공원 조성,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 도로 유휴 공간 녹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

경전철 1일 평균 탑승객이 4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운행도 안정적이며 새해는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 공간 부족과 시내 곳곳 교통체증으

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및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첨단 복합버스터미널 건립, 국도3호선~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 국도39호선 확장,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연결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철 8호선 연장, GTX 조기 착공 등 철도망 연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교육·문화·예술·스포츠 등 생활SOC사업 추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

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발곡음악도서관 건립과 미술도서관 및 가재울도서관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락·호원 국민체육센터 등 복합스포츠 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고, 국제테니스장, 한국기원을 유치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개선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물론 도시재생 뉴딜 국가사업에 선정된 흥선마을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신흥마을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육아종합센터 활성화, 분소 설치, 다함께돌봄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행복콜 차량을 증차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 없는 복지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 행정력 제고로 경기북부시대 활짝

시는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민간투자 개발방식을 통해 직동·추동 균린공원을 조성했고 전국 52개 지역만을 선정한 도시재생 국가주도 응모사업에 유일하게 2곳이 선정돼 국·도비 80억 3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수로 구성된 행정혁신위원회를 10년째 운영해 창의적인 정책을 연구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포럼 개최와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시는 이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평화의 중심도시로 가칭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자매

도시인 중국 단둥시, 일본 시바타시, 베트남 하이즈엉시와 우호도시인 러시아 비로비잔시, 이탈리아 루카시는 물론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의 도시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주도 열린행정·스마트시티 등 6대분야 비전 소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건설 박차”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020년도 새해 비전을 밝혔다. 최 시장은 올해 추진할 6대 분야의 비전을 밝혔다. 시민들의 성원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뒷받침된다면 그 어떤 역경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행복한 스마트 안양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 시민이 주인인 열린 안양시정

카카오톡 채널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영역을 넓힌다. 시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 원탁회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안양행복1번가'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정현장 평가단과 청년정책서포터즈로 각 계층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공감행정에도 주력한다.

● 젊고 활기 넘치는 경제도시 안양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청년직무박람회,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안양1번가에는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소통·문화공간을 설치한다.

임시 개장했던 청년 도깨비야시장을 3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청년창업펀드 300억 원 조성과 청년기업 100개 육성, 석수동과 인덕원 일원에 조성하는 청년스마트타운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구현으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AI기반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통의 혁신이라 할 자율주행 사업 또한 속도를 낸다. IoT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는 미세먼지 모니터링,



“
시민들의 성원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뒷받침된다면
그 어떤 역경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시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행복한 스마트 안양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
”

스마트가로등, 드론활용 재난·재해감시, 상수도사용량 원격검침 등의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스마트하게 진행하게 된다.

또 4차 산업혁명교육체험센터와 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방범CCTV 관제시스템에 지능형 스마트기술을 도입,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시민 안전보험에도 가입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업그레이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광역전철망이 안양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농립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과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안양역 일원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관양고·인덕원·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을 비롯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또한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그리고 교육복지까지 실현

장애인복합문화관, 치매안심병원, 어르신종합복지센터 등의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콜센터와 카카오톡 밸꿀단, 무한돌봄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성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출산율 향상 및 아이 낳아 기르기 편리한 환경을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에 이어 체육복 구입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친환경급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1인1악기 배움지원와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수·박달권역에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다.

● 스마트 안양, 힐링·관광도시로도 성큼

명소 안양예술공원에 관광종합안내센터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공공예술작품 자동안내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VR·AR콘텐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문화유적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석수동 마애종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등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평촌중앙공원·미관광장·시청사 광장·평촌공원을 끊이지 않고 연결시켜 복합문화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목안 캠핑장에는 물놀이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친환경적 차량인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와 학교어린이집 및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건물옥상 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걱정 없는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 민선7기의 본격서막 알린 2019년, 스마트 행복도시 초석 다져

안양시는 민선7기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린 2019년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청년관련 29개 사업에 146억 원을 투입해 청년층 생활안정을 도모했는가 하면, 제1회 안양청년축제와 전국 최초 청년상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등을 이뤄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자율주행 기반 조성에 뛰어들었으며,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노력했다.

신 중년층을 위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만안·동안치매 안심센터를 잇따라 개소했다. 종합운동장 가변식 신설과 천연잔디 교체 등 FC안양에 대한 물심양면 지원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정 '최다관중', '관중증가'라는 2관왕 달성과 청단 최초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19 청년친화현정 대상',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 '2019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최우수', '2019 도시 스마트시티분야 국토부장관상', '전국최초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 선정',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등 총 91건에 걸친 수상 및 응모채택이란 쾌거를 낳았다.

배진석 기자



“주민숙원 해결” 공공청사 5곳 준공

장애인복합문화관·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올해 첫삽

경기 안양시가 올해 5개소의 공공청사를 준공하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나선다.

시는 총 사업비 531억여 원을 들여 동청사 3곳과 시립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올해 8월 안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복합문화관과 해누리어린이집을 포함한 6개 공공청사를 연내 착공 또는 건립추진 할 계획이다.

새로 건립되는 건물로는 박달복합청사(박달동 141-2번지 일원)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시는 예산 305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지하3층 지상5층(연면적 12,305㎡) 복합청사로 건립, 올해 7월 중 준공할 예정이다.

재건축 지구로 이전 신축되는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비산2동 414-4일원/연면적 3,611㎡)도 7월 준공이 목표다. 기존의 동 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안양8동 572-1 일원/연면적 2,981㎡)는 한 달 늦은 8월 준공을 앞뒀다.

두 개 청사 모두 지하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져 민원실, 다목적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되며, 어린이집이 비산2동 청사에 새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94억 원에서 9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2018년 착공해 금년 5월 신축 완료

예정인 비산3동 매곡어린이집(비산3동 318-79/691㎡)은 27억 원이 투입돼 3층 건물로 지어진다.

또한 노년층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석수1동 경로당(석수동 182-17일원/293㎡)은 도비 9억이 소요, 2월 중 착공에 들어가 8월 경 문을 열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복지와 재활에 부응할 장애인복합문화관을 안양6동(만안구 냉천로 39)에 건립키로 하고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1월 첫 삽을 뜰 계획이며,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를 올해 12월 시공에 들어가 2022년 5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조성될 해누리어린이집은 3월 중 공사 착공해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도 시는 석수체육관(석수동 279-38) 건립을 오는 2022년 5월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년 3월에 준공하고,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년 10월 착공해 2023년 4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박달복합청사, 장애인복합문화관, 석수체육관 등의 공공청사는 만안구의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배진석 기자

시민 10명중 7명

“용인은 살만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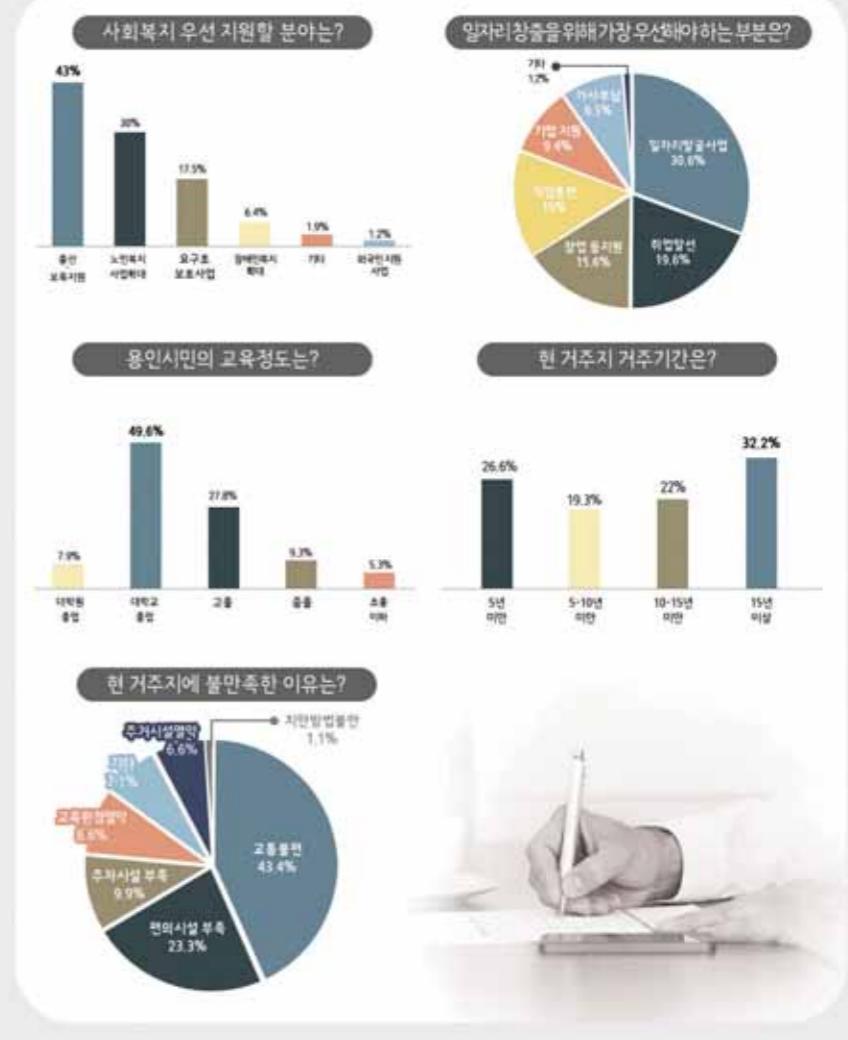
용인시
YONGIN CITY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 실시
89.4% 다른 지역서 이주 정착
“고향처럼” 정주의식 강해

관외 통근·통학 비율 50%
교통여건·교통망 개선 원해

생활·주거·교육·식료품비順
20대, 주거비 부담 42% 육박

2019년 용인시 사회조사 (단위: %)



경기 용인시민의 89.4%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열 명 중 일곱 정도는 용인시를 고향처럼 여기거나 살만한 도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 명 가운데 세 명 정도가 집 때문에 5년 내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용인 내에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용인통계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2.2%의 시민이 현 거주지에서 15년 이상 거주했으며 22%가 10년 이상~15년 미만, 19.3%가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에도 이 지역에 거주할 것인지(정주 의식)에 대해선 68%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럴 것이라고 했으며, 18.3%는 보통이라고 했고, 13.7%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용인이 그만큼 살만한 곳이란 얘기다.

통근통학을 하는 시민의 비율은 63.6%로

도내 평균(65.4%)보다는 약간 낮았는데 평균 소요시간은 42분이었다. 이는 서울지역으로 19.7%, 도내 타 시군으로 28%나 다른 등 관외 통근통학 비율이 50.2%나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인시민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도내 평균(46.8%)에 비해 높게 나왔는데, 52.5%가 만족(매우 또는 약간)한다고 했고 11.2%만이 불만족(매우 또는 약간)하다고 했다.

현 거주지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39%로 19.7%인 불만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불

만족을 나타낸 시민들은 그 이유로 43.4%가 교통불편을 꼽았고 23.3%가 편의시설 부족, 9.9%가 주차시설 부족, 8.6%가 교육환경 열악, 6.6%는 주거시설 열악 등을 제기했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시민을 포함해 용

인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66.4%로 나타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장 소재지별 통근 소요시간은 편도로 서울 72분, 인천 80분, 도내 타 시군은 44분으로 집계됐다. 통학에 필요한 시간은 이보다 길어서 서울 97분, 인천 126분, 도내 다른 시군 65분 등으로 나타났다.

통근 수단으로는 승용차 비중이 5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버스(20.2%), 전철(13.4%), 도보(6.1%) 순으로 나타났다. 통학하는 학생들은 49.7%가 버스를 이용하며, 이어 도보(26.3%), 전철(16.8%), 승용차(4.9%)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가구가 생활비 지출 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문은 주거비(22.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비(22.3%)와 식료품비(18.5%), 보건의료비(16.4%), 교통통신비(4.2%) 순으로 썼다. 부담스러운 지출이 없다는 응답은 12.2%였다.

특히 20대 가구는 42%, 30대 가구는 33%가 주거비를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와 맞물려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은 일자리 발굴(30.6%)을 비롯해 취업알선(19.6%), 창업 등 지원(15.6%), 직업훈련(15.0%) 등을 꼽았다.

시민들이 사회복지 가운데 우선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출산보육

지원이 43%나 됐고, 노인복지사업 확대(30%), 저소득층 구호(17.5%), 장애인복지 확대(6.4%), 외국인 지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시정과 관련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아는 시민은 51%나 됐으나, 시민안전보험을 아는 시민은 14.1%에 불과했다.

또 희망도서바로대출제(21%)나 용인와이 페이(22.2%)의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30.2% 출퇴근 교통 개선광역교통망 구축을 꼽았고 이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지역개발 추진(27.9%), 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정책(9.4%), 공공복지 서비스 강화(8.2%) 순으로 답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27일 0시 기준으로 15일간 진행됐다.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한 1,590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용인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시대\]](#) 유완수 기자

수원 City Tour

‘수원시티투어’ 확 바꾼다



**수원시, 3월까지 운영중단
코스 변경·문화재단 위탁
자유롭게 승하차하며 관광
장애인 관광 편의 등 개선**

경기 수원시는 ‘수원시티투어’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중단한다.

2002년 4월 수원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수원시티투어는 수원화성, 수원화성·광교호수공원, 수원화성·용건릉 등 3개 관광코스를 운행하고 있다.

수원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공식 문화관광상품이지만 2014년 8,422명 이던 연간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5천723명 선으로 급락하면서 운영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용객 선호도가 낮은 해우재(세계 최초 화장실박물관)와 진입 도로 여건이 나쁜 화홍문(수원화성의 북문)을 운행노선에서 빼고 화서공원·봉녕사·수원컨벤션센터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원화성·수원광교호수공원·용건릉 코스는 순환형과 테마형으로 개편한다.

‘순환형 코스’는 관광가이드가 인솔해 모든 코스를 체험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이용

객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바꾼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1일 4회 투어버스가 왕복한다.

수원의 이색 체험시설을 탐방하는 ‘테마형 코스’는 순환형 코스에서 빠진 해우재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화성행궁 등을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하루 1회 운행한다.

수원시는 2010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수원시티투어를 공기관인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해 안내원·문화관광해설사 등 재단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어버스에 휠체어 고정좌석(2석)과 휠체어 리프트 장비도 설치해 장애인들의 관광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시티투어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뒤 4월 1일 재개할 계획이다.

박선식 기자



‘제각각’ 공공기관 채용시험 통합관리

경기 수원시는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별로 제각각 진행하던 채용제도를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하고, 필기·면접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1회씩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시행하면서 필기시험은 시가, 서류전형·면접시험은 기관이 각각 주관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수원도시공사,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FC,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체육회 등 6곳으로 21명의 신규 직원이 상반기 채용된다. 하반기에는 7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시 주관 필기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정보·조직 이해 등 5개 영역과 인성검사(공통)로 정했다.

전문 과목은 영어, 행정법, 문화예술, 일반상식, 기계 일반, 마케팅, 체육 상식 중 2과목이 기관별로 채택된다. 4월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거쳐 5월 중순께 제1회 수원시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이후 6월 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진행되고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수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통합채용에 나선 것은 13개 공공기관마다 채용 방법이 달라 응시자들이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기관별 채용으로 인해 시험 전문기관 위탁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3개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합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필기시험은 아예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시험도 면접관 구성부터 방법과 내용이 기관별로 모두 달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는 올해부터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시험과목을 도입했다.

면접시험도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을 중복해서 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인원과 심사기준을 사전에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채용 단계별로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광역버스 사전 예약제 市 예산 투입...지속 운용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말로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종료된 광역버스 사전예약제를 시 자체 예산을 들여 올해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광역버스 사전예약제는 기점에서 멀리 떨어진 정류장에서 광역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모바일 앱인 ‘굿모닝 미리’를 활용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 10분부터 8시 20분까지 좌석을 골라 예약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사전예약제는 휴업한 7900번(사당역) 노선과 화성시로 면허가 이관된 7790번(사당역)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버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모바일 앱 ‘굿모닝 미리’를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탑승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좌석 예약은 선착순이다.

박선식 기자

수원페이 405억 발행...작년보다 114억 ↑

경기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수원페이)를 지난해 총 발행액보다 39.1%(114억 원) 늘린 405억원을 발행한다.

정책발행은 청년 기본소득 159억원, 산후조리비 42억원 등 201억원, 일반발행은 200억원, 기타발행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1억원과 공직자 복지포인트 지급 3억원 등 4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발행된 수원페이는 초기 목표액 280억원을 초과한 291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일반발행의 경우 50억원 판매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면서 수원시가 3회에 걸쳐 1억9천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총 128억원을 발행했다.

수원페이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이용자는 충전금 액의 6%를 인센티브로 받고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수원시내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박선식 기자



정

동군 경기 양평군수가 “2020년 경자년은 군민을 섬기는 따뜻한 동행을 지속해 양평의 희망이 본격적으로 싹트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신년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9년은 민선7기가 당초 계획한 방향에 따라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려 양평군의 발전상을 확립한 중요한 시기였다”면서 이같은 새해 비전을 제시했다.

● 미래 신성장 동력 ‘희망의 씨앗’ 심어

정 군수는 지난해까지 양평군의 성장동력을 발굴, 다지는 일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선7기 2년차인 양평군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 ▲신성장 미래동력 발굴 육성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구현 ▲문화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의 4개 주요 분야 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를 일궜다.

정 군수는 소통을 강조한다. 타운홀 미팅, 행복한 양평 만들기 100인 토론회, 소통 공감 ‘톡톡! 카페’+ 운영, 온라인 군민청원제 ‘양평콕콕청원’ 개설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 직접 참여했다.

중요한 인프라 확충 노력도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군민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양평~이천 제2 순환 고속도로 4공구 공사 착공과 양평~광주 국지도88호선 시설개량 사업, 양근대교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국도37호선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숙원사업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민관의 좋은 협업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발행된 양평화폐 ‘양평통보’는 카드형 화폐의 경기도내 인구당 발행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당초 발행액 45억 원이 초기 소진돼 25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경기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군민과 동행 통해 ‘희망의 씨앗’ 싹 틔울 것

정 군수는 2020년의 군정목표를 크게 6 가지로 세우고, 양평군의 희망의 씨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첫째, ‘소통과 참여의 공정도시’다.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협치회를 년 12회 열고 우리동네 원탁회의, 군수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등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양평공사 공단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과 채권·채무 등 진단용역,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 등을 통해 양평공사의 공단 전



리, 화전2리, 연수2리에는 주민참여형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넷째, ‘미래와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 도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학교 지원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용문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등 청소년공간 확충에 나선다. 양평청년사이다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및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등을 통해 지역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기반도 구축한다.

다섯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도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군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안전한 복지활동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여섯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다. 양평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문화도시 공모 추진을 통해 지역 고유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 군수는 “경자년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여건에서도 2020년을 ‘기회의 해’로 인식,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도시 양평’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잊지 않지 않는 군수, 신뢰받는 군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결코 피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양평군 어떤 공무원들 보다 한발 더 앞장서서 달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흥문식 기자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해야”



맹정호 서산시장, 환경부 방문…미세먼지 공동대응·제철소 전철화 전환 등 건의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환경부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원 등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연 초부터 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맹 시장은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소속 지자체장들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남부권-충남 환경부 미세먼지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해 12월 협약식을 가진 이후 처음 실시한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의체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가칭)’ 지정을 위한 특별법 신설 ▲정부 참여 국비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공동 연구용역 추진 ▲석탄화력 발전 대책마련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 ▲제철소 전철화 전



환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맹 시장은 “서산시가 태안화력과 당진화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어 대기오염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울산여수와 더불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이 위치, 현대 오일뱅크, 한화토텔,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60여개의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매년 대기오염물질 출량이 증가하

고 있다”며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산시에서는 2016년 충남도에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건의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했으며, 경기 남부권-충남 환경부 미세먼지 공동협의체에 참여해 공동 대응해 왔다.

맹 시장은 “앞으로도 서산시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대책마련이 어려운 분야는 공동협의체와 함께 대응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한상규 기자



가성비·가심비 多 잡았다… 최강 농산물 선물세트 ‘서산에서 왔소’



충남 서산시는 최근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선물세트 8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선물세트는 통합브랜드인 ‘서산에서 왔소’로 출시됐으며, ▲통째로 쪄 꿀생강차 ▲아로니아싱싱초 ▲대추차 ▲생강조청 ▲마분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제품은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연구·개발한 32종의 제품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들을 농업인들에게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됐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시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본부, 카카오메이커스, 네이버 해피빈 등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는 등 유통망 확대를 통한 선물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우리지역 농산물로 가공된 다양한 머거리 선물세트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공정 확립, 지속적인 판매 제품 생산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공동

가공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농식품 창업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 중인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고 가공식품 제조기술, 식품안전,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5유형(과채주스, 캡, 기타엿, 음료베이스, 액상차)의 HACCP 인증도 받는 등 위생적 인 환경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로 명품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이용해 가공제품을 생산하려면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조사를 거쳐 판매용 가공제품을 출하해야 한다.

시는 농업인 가공역량 강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2월 12일까지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기초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660-3926)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시대

한상규 기자

서해안권 유일 태안 해양치유센터 청신호 켜졌다

●●●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 위한 중장기계획 발표
태안 해양치유센터, 올해부터 2023년까지 '레저복합형' 추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 태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은 최근 '해양치유법'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까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게 되

며, 태안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으로 개발된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가 모두 준비된 상태이며, 소금·염지하수·갯벌·해송·해변길·피트·모아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해, 태안만의 특화된 치유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지역 장점을 활용한 운영계획을 세우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해양치유법' 통과와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총 사업비 340억 원(국비 17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연면적 8,740m²)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태안에 해양치유시설이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49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263억, 그리고 약 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한상규 기자



태안산 냉이·달래 향긋한 유혹

태안군, 갯바람 맞고 자라 진한 향 일품

충남 태안지역 농민들이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냉이와 달래 수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역 100여 농가가 냉이를 수확하고 있다고 밝혔다.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A, 비타민C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고 간·위장 건강에 효과가 있으며 소화기능을 도와 입맛을 돋우는 한편, 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냉이는 갯바람을 맞고 자라 쌉쌀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이며,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단순한 나물음식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태안에서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200여 t의 냉이와 달래를 수확·출하하고 있으며, 태안산 냉이는 현재 1kg 3,500원, 달래는 1kg 6,000원 선으로 산지수집상 및 농협공판장을 통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지에서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군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추진, ▲세척시설 ▲이동식 하우스 ▲냉이 수확기 ▲달래종구 건조 및 보관 개량형 건조시설 등을 농가에 지원해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태안 달래는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맛 향이 독특하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 피로·불면증·빈혈·증풍·식욕부진·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어 도시민들의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지역의 냉이는 해풍을 맞고 자란 무공해 농산물로서,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뿌리가 곧고 깊게 뻗어 상품성이 뛰어나다"며 "태안지역의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고 있는 냉이와 달래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규 기자



광명시, 초등생 신입생 입학 축하금·고교 신입생 교복 현물 지원 등 알찬정책 추진

“32만 광명시민에 더 많은 혜택을”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2만 광명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2020년 새해에는 더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난 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큰 호응을 받았던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올해 경로목욕, 이·미용권을 연간 1인 6 매씩 지급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제도와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

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했던 고교 지원을 올해부터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으로 지원한다.

광명시가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지난해에는 연5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이면 취업면접 또는 일자리박람회 참가 시 재킷, 치마, 바지, 블라우스, 셔츠, 넥타이, 구두 등을 3박 4일간 빌릴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명시청 누리

집에 가입해 신청 후 승인번호를 문자로 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대여업체를 방문해 원하는 옷을 빌리면 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명칭을 바꾸고, 지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청년(15세~39세)이 10만 원을 저축할 때마다 근로 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올해부터 광명시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에 의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연2회 3매씩 이용권을 배부한다.

또한 노인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3가지로 각각 추진되던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 확대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이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광명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5명의 전담사회복지사와 98명의 생활관리사가 담당한다.

올해부터 A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20세부터 49세에게 예방접종을 2회 무료 지원한다. 만20세부터 39세까지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만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음성자만 접종한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 어린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였으나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저소득층 지원금이 기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2만 광명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광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하정현 기자

광명시, 박현민·맹소영·노정렬 홍보대사 위촉



경기 광명시는 최근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와 기상캐스터 출신 날씨 칼럼니스트 맹소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두 명은 앞으로 2년간 광명시를 알리는 홍보 사절단으로 활동하면서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와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연예인으로 유명한 개그맨 노정렬 씨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방시대

‘요금 1500원’ 공공형택시 본격 운행

경기 광명시는 지역 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이 일정액의 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택시를 말한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행 지역은 광명 6동 두길마을·식곡마을, 광명 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 등 모두 7개 마을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1회에 1천500원만 내고 하루 2차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요금은 해당 택시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에서 지급한다. 시는 주민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필요한 콜비용(1천~3천원)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내년 관련 사업비로 1억 8,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시대

공사장 안전관리 ‘안전보안관’ 확대 배치

경기 광명시는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을 올해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전보안관 34명을 선발,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올해 안전보안관은 지난해 24명보다 10명 늘어난 것이다.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안전보안관들은 각종 공사 현장 주변을 순찰하며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 차량 안전운행 및 서행 유도, 공사장 안전펜스 점검 등을 담당한다. 공사장 주변 소음, 진동, 먼지 발생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특히 올해 ‘야간순찰 안전보안관’도 배치해 주야간 시민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보안관들은 600여건의 안전 위협 요소를 발견, 조치하도록 한 바 있다. 지방시대 하정현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첫발



전남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10주년이 되는 2023년 박람회 재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전남도와 순천시, AIPH KOREA(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위원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허석 순천시장, AIPH

KOREA 안홍균 회장을 비롯한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순천새마을회지회장,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등 각계 기관단체장이 참석,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남도와 순천시 박람회 공동개최, 국도비 확보 공동 노력, 박람회 지원단 구성, 전남도, 순천시, AIPH

KOREA간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3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의 끈, 마을, 습지, 해안, 국가정원 등 5대 자연정원 조성을 목표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이 되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세계적 롤

모델로 만들고, 여기에 정원자재판매장과 정원수 공판장, 숙박 시설 건립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원경

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AIPH의 오는 2월 순천 현지실사와 3월 미국 마이애미 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 박람회 성공개최에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길원 기자



농협은행 순천시지부, 순천대에 발전기금 총 17억여 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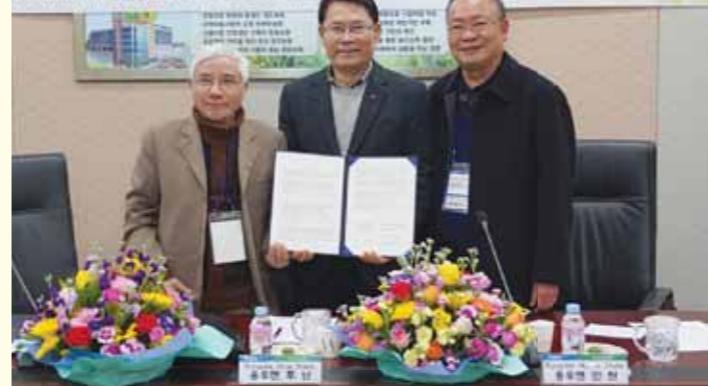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NH 농협은행 순천시지부(지부장 김회천)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대학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회천 지부장은 “순천대학교의 발전이 바로 지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라 생각해 왔으며 그동안 우리 NH농협은행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1995년부터 매년 순천대에 발전기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지금까지 기탁된 기금은 총 17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서길원 기자

경제교류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ào mừng Nhóm trao đổi kinh tế đến tham quan công tác

지속가능발전연구원, 농업발전연구원, 베트남그린에너지, 베트남AIPPC, 智真能濟商學, 與農 | 소천면면, 合作 xã nông,



순천농협-베트남 “농업교류 ‘제3한류’ 스타트” 상호 농산물 수출입 등 농업교류 포괄적 협조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과 베트남 경제교류단(단장 응우엔 후 닌)은 최근 순천농협에서 ‘농업 관련 교류 의향서’를 교환, 양 기관과의 경제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베트남 경제교류단 방문은 그동안 순천농협이 농업 관련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적극 대응코자 지난 7월 아열대 작물에 관심 있는 농업인 조합원 40여 명이 베트남 농업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류의 물꼬를 뒀다. 또 다문화 이주여성이 국내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베트남 이주여성의 아열대 작물 재배 성공사례가 전국으로 널리 전파돼 이를 계기로 방문하는 등 폭넓은 양 기관의 경제교류를 맺어왔다.

특히 베트남 경제교류단장인 응우엔 후 닌(NGUYEN HUU NINH)박사는 2007년 미국 대통령 옐로아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IPP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공로 기여자다.

응우엔 후 닌 박사는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대한 순천농협의 다양한 농업분야의 적극적 대응 노력과 동남아 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진심으로 감명 받았다”며 “순천농협의 성공적인 사례를 UN 산하 농업 관련 기구에 널리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순천농협 강성재 조합장은 “아직까지는 아열대 작물재배 및 유통에 대해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선구적으로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더 쓸고자 한다”며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정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 등 순천농협이 이룩한 발전 모델을 공유, 순천농협과 베트남 간의 상호 농산물 수출입을 포함한 농업교류에 관한 포괄적 협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길원 기자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의 새로운 도전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달려갈 것” 새해다짐

전남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생태경제 도시’를 향한 순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여건, 생태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등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특화·발전시켜 ‘생태경제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순천시의회가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더 나은 순천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약속했다.

서길원 기자



장흥 물축제,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전남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김금옥 기자



순천교육청, 학생자치회 연수·정책마켓 성료

전남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훈)은 최근 관내 초·중 2020학년도 예비 학생자치회 대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학생자치회 운영에 대한 연수 및 순천교육 정책 마켓'을 성료했다.

서길원 기자



이길훈 순천교육장, 초·중 배드민턴 선수 격려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이길훈 교육장은 최근 순천연향중학교 체육관을 찾아 메달을 향한 초·중학생 배드민턴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길원 기자



순천농협노조, 순천시에 1천만원 기탁

순천농협노조(지부장 이영희)는 최근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순천시에 전달했다.

서길원 기자



순천시, 예비시민작가 도서 전달식

전남 순천시는 최근 삼산도서관 2강의실에서 '예비 시민 작가 발굴 프로젝트'로 완성된 10권의 시민 작가의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 전달식에서는 10명의 시민작가가 모여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원고가 책으로 출판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 시민 작가 발굴 프로젝트'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지역 작가를 발굴, 사라져가는 순천 이야기를 남기고자 시민들의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주는 프로젝트다.

서길원 기자



서길원 大記者의 독자와 함께

詩
읽기

58년 개띠, 모친 세파를 헤쳐나온 그들

58년 개띠

- 서정홍作

58년 개띠 해
오월 오일에 태어났다. 나는

양력으로는 어린이날
음력으로는 단옷날

마을 어르신들
너는 좋은 날 태어났으니
잘 살 거라고 출세할 거라고 했다.

말이 씨가 되어
나는 지금 '出世' 하여
잘 살고 있다.

이 세상 황금을 다 준다 해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가 되어
땀 흘리며 살고 있다.

갑근세 주민세 한 푼 깎거나
날짜 하루 어긴 일 없고
공짜 술 얻어먹거나
돈 떼어먹은 일 한 번 없고

어느 누구한테서도
노동의 대가 훔친 일 없고
바가지 씌워 배부르게 살지 않았으니
나는 지금 '출세' 하여 잘 살고 있다.(중략)



〈함께 읽기〉 서정홍 시인(1958년생)

경남 창원 출신으로 위낙 가난한 환경 때문에 야간중학교를 끝으로 학교와 단절 그 뒤 아동문학가 이오덕 선생의 영향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까닭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또 전쟁이 터지면 내 후손은 끊기고 만다는 강박관념에 아이 생산부터 서두른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설이 있다.

소설가 은희경이 58년 개띠를 주인공으로 한 '마이너리그'란 소설에서, '어디를 가나 사람에 치이는 일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의 숙명이었다.'고 했다.

정말 그때 많이 태어났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때는 가장 빽빽한 콩나물시루 교실이었고, 이들이 대학 시험을 치르는 1977년도에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기업체 입사 경쟁률도 최고였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58년 개띠들이 어느 나이대보다 부지런하며 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정된 일자리,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치며 먹고살려면 머리야 둘째치고 일단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수없는 시대였으니까. 거기다 이들이 군대 있을 즈음 (여성들은 졸업반일 때) 계속 이어진 군부독재와 그에 반발해 일어난 수많은 민주화 시위, 어떤 이는 민주화 투자가 되어 화염병을 던지고, 또 어떤 이는 진압군이 되어 친구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쳐야 하는 비극을 겪는 세대이기도 하다. 게다가 90년대엔 반짝 경제호황이 있었으나 이내 IMF의 직격탄을 맞은 억세계도 운 나쁜 세대이기도하다. 주변에 혹 '58년 개띠'가 계신다면 한 번 꼭 안아주시길, 다들 힘들게 살았지만 특히 더 힘들게 모진 세파를 헤쳐나온 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해가 바로 1958년 개띠해다.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대를 사회학자들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그럼 왜 하필 그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먹을 게 없어서 낳은들 굶주릴 수밖에 없던 지독히도 가난한 시절에 애는 낳아서 뭘 하겠다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위기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식 퍼뜨리기, 즉 종족 번식부터 생각한다고 하는 학설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끝난 뒤



한상규 기자의 알기쉬운 회의진행법

충남취재본부장



법인단체의 예산전용에 대한 유권해석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

A법인단체 회장은 최근 이사회 소집 공문서를 발송하면서 제1호 의안 윤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제2호 의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선임(안), 제3호 의안 회관확충기금사용승인(안), 제4호 의안 실무교육규정개정(안), 제5호 의안 기타사항 등 다섯 가지 안건을 통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5호 의안, 기타사항의 안건은 '세출예산 과목전용 승인의 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과연 이와 같은 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안성립은 가능한 것인지? 또한 본 단체의 '세출예산 과목전용승인'은 총회의 의결사항인가? 아니면 이사회 의결사항인가?



먼저, 이 회의체의 이사회 안건으로 공지한 내용 중, 제5호 의안 기타사항은 일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 협의사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호 의안 까지만 안건채택(상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의체구성원인 이사 등이 새로운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의안채택 발의를 한 후, 회의체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의가 없거나 또 다른 찬성자 재청이 있으면 비로소 의안이 성립되므로 질문 요지인 제5호 의안 '기타사항' 자체로는 제안 설명이 있더라도 '세출예산 과목전용 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은 성립 될 수 없다.

A단체의 회칙 제19조(의결사항)①항 4번에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단체가 별도로 정해 놓은 '예산회계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항목간의 상호이용은 할 수 없다. 다만, 산출기초에 계상된 세부사업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각 항목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목전용명세서 작성 후 전용하려는 금액과 사유 및 전용으로 인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사전의결로써 전용집행하고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와 비품구입비, 연수교육비, 감리비는 타 항목에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되며 특히, '임원수당'목은 관리비(인건비)항이며 '회의비'목은 '운영비'항에 해당되므로 전용집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장이 변칙적인 의사진행으로 '세출예산 과목전용 승인의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해 가결됐다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고 /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

농업을 포천의 미래, 경제부극으로 이끌 것

농업은 생명산업, 그래서 인간의 필수적 산업

수려한 경관, 자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포천 따뜻한 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포천 나는 포천을 사랑한다.

포천은 동쪽과 북동쪽으로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 서쪽으로 천보산맥(天寶山脈)을 경계로 양주시, 남쪽으로는 의정부시·남양주시, 북서쪽으로는 한탄강·지장봉(地藏峰)·화인봉(花人峰) 등을 경계로 연천군, 북쪽으로 강원도 철원군과 접하며 북동쪽 경계에 백운산(白雲山:904m)·국망봉(國望峰:1,168m)·현등산(懸燈山:935,5m) 등이, 북쪽 경계에는 명성산(鳴聲山:923m)·광덕산(廣德山:1,046m), 남쪽 경계에는 용암산(龍岩山:477m) 등이 솟아 있다.

그리고 포천동과 선단동을 흐르는 포천천, 일동면(一東面)을 흐르는 일동천 등이 있다. 이 두 하천은 영평천과 합쳐 연천군 신답리(新答里) 아우라지 나루에서 한탄강으로 합류한다. 또 다른 수계인 산내천(山內川)은 연천군 초성리(哨城里)를 거쳐 한탄강으로 들어간다. 이 두 하천의 유역은 비교적 넓어 경작지와 취락으로 이용된다.

내륙에 위치하므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 10.5℃, 1월 평균기온 -7.3℃, 8월 평균기온 25.7℃이며, 연강수량은 1,300mm이다. 이처럼 포천은 지리적으로 산세가 좋고 물이 맑아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 토지의 69.1%가 임야이고 경지는 17.6%로 경지 중 논 5,239ha, 밭 5,865ha로 논과 밭의 비중이 비슷하다.

주요 농산물로 쌀 이외에 감자·콩이 생산되고 채소류로 무·배추·고추·파·오이·수박·참외, 특용작물로 참깨·들깨·황기·땅콩, 과실류로는 사과·포도·배 등이 생산된다. 목축업으로 젖소·닭·돼지 등이 사육되고 있다. 산지가 많아 임산물이 풍부한데 주요 임산물로 잣·밤·대추·도토리·표고버섯이 생산된다. 특히 잣은 경기도의 가평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농업인구는 1만 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포천시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예부터 선조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다. 그 뜻은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근본이라는 의미다.

지금 우리는 그 뜻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바로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농업인이 살기 좋은 도시, 농사하기 좋은 도시, 포천

포천시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농촌발전을 함께 이를 차례다. 농업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의 농업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포천시는 '농업인이 살기 좋은 도시, 농사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포천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원, 포천시 농업인회관 건립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첫째, 포천시 농업재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농업재단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포천시 농업재단은 크게 유통, 인증, 통합 브랜드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인증·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민의 농축산물 통합브랜드도 만들 예정이다.

둘째, 포천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수당은 판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화폐가 발행되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시는 추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포천시 농업인회관 추진으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의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실과 농업인단체 사무실, 도서관 등의 시설을 조성해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천의 농업경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옛 성현 말씀 중에 本立道生(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다.

'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포천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정책을 기본으로 삼아 앞으로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포천의 농업경제가 대한민국의 부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항상 진취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논어의 위정편에 以德以禮(이덕이례)라는 말이 있다. 나는 덕성과 예의로 농업인을 존중하며 항상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높은 포천, 나아가 살기 좋은 포천으로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나·너·우리 함께하는 품격강남

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스타일브랜드 탄생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서울 강남구를 변모시키고 있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강남다운 강남, 품격강남'을 강조하며 "강남구가 외형적인 발전과 성장, 변화에 걸 맞게 함께 더불어 살며, 나누고 베푸는 지역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2020년을 재도약의 첫 걸음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강남,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다

국내 최대 지하도시가 될 영동대로 복합 개발에 만전을 기한다. 이 사업은 지상에 약 3만m²로 서울광장의 약 2.3배의 녹지 광장과 지하에 고속철도, GTX-A·C, 위례~신사 경전철, 2호선(삼성역), 9호선(봉은사역) 등이 경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안전한 공사를 위해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569m 105층 규모로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GBC가 2월 중 본격 착공되고, 수서역 일대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집약된 SRT수서역세권 개발 중 올해는 공동주택지구의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등을 착공하면서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삼성동과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수도권고속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돼 마무리되면 글로벌 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 예산 1 조원 시대 '스마트시 티 강남' 초석



▲ 정순균 강남구청장

24시간 여성 안심망을 운영해 '스마트안전'을 주민이 실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강남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나라의 1등 도시인 반면, '반강남정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1등 도시에 걸맞게 강남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정순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강남의 스타일 브랜드가 탄생했다.

기존 BI·CI와는 차별화된 강남구의 스타일 브랜드는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의 뜻으로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이다. 강남이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담고 있다.



2020 강남구 신년인사회

이를 통해 새로운 강남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미미위 강남' 조형물 및 가로기 설치 등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로서 강남 브랜드 가치를 높여 '품격 있는 도시, 강남'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 기분 좋은 변화 구민 모두 행복한 강남

2020 강남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시켜 브라질의 리우카니발 같은 글로벌 축제 브랜드로 기워나간다. 강남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강남 둘레길' 조성, 전통문화유산을 예술관광 콘텐츠로 승화시킨 '선정릉 야외뮤지컬', 365일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강남 WEEK' 등 수준 높은 축제와 문화를 제공한다.

아울러 수서동에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개포도서관을 신축해 정보화 사회에서 선두로 나선다.

이와 함께 도심 속 휴식 공간 '힐링센터(코엑스)'와 풋살장과 테니스장 등이 어우러진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여름철 학교 운동장에 'Pop-up Swimming Pool'을 설치해 학생,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이 절실히므로 모든 중학교에 메이커 교실을 구축하고,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속 설치, 운영한다.

이외에도 공립 어린이집 4개소와 '다함께 돌봄 센터' 2개소를 늘리고, 출산양육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는 '강남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훈대상장 위문금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등으로 포용복지 to 실현한다.

박창복 기자

국내 최대 지하도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만전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글로벌 도시' 거듭 ICT·빅데이터·AI 등 신기술 접목 '스마트시티' 실현 구민소통·참여통한 공동체로서 강남 브랜드 가치 향상 기분 좋은 변화 구민 모두 행복한 강남으로 업그레이드



구민 10명중 9명 “송파구 살기 좋아”

일자리 1위, 교육 1위, 삶의 질 1위

적절하다

9%



송파구, 구민 1000명 1:1 대면 면접조사 실시
‘일자리·교육·삶의 질 1위’ 비전…92.9% “적절”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9 송파구 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민 10명 중 9명이 송파에서 사는 것을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7기 3년차를 맞아 구정에 대한 평가와 역점사업에 대한 구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물어 2020년 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주)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결과에 따르면, 구민들은 송파구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거주여건에 대한 질문에 97.7%가 ‘살기 좋다’라고 답했으며, 주거·경제·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고려했을 때 삶의 질이 ‘높다’는 의견도 88.8%였다. 이는 작년 대비 12.3%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러 생활환경 요소 중 ‘주거여건(편의시설, 위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53.8%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지역발전의 견인요인으로 ‘편리한 주거요건과 주거자산 가치의 안정성(27.4%)’을 꼽아 주거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송파구는 민선 7기 ‘일자리 1위’, ‘교육 1위’, ‘삶의 질 1위’를 구정 비전으로 삼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구정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비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 92.9%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구민들이 희망하는 송파구 미래상 역시 구정 비전과 일맥상통했다.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1위가 ‘경제도시(27.2%)’, 2위가 ‘복지도시(23.2%)’, 3위가 ‘교육도시(21.6%)’ 순이었다. 또 조사대상의 84.2%



는 지난 1년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많이 개선된 분야로는 ‘보육(23.4%)’을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지난 1년 6개월 간 국공립어린이집 91개소까지 확대, 송파기움센터 4개소 신설, 서울시 최초 야간급돌봄서비스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31.4%)’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를 위해 ‘청년취업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40.2%를 차지했다. 구는 올 한해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송파청년ICT창업지원센터, 여성경력이음센터, 시니어컨설팅센터 등을 통해 청년과 각 계층별 맞춤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는 구민 요구에 발맞춰 2020년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64억 원에서 83억 원까지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99개소까지 확대, 송파교육모델 ‘송파쌤(SSEM)’ 완료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들이 송파구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송파구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올해에도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창복 기자**



2019 수상 성과 104개…역대 최다 복지~문화까지 세계무대서도 인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9년 각종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서 총 104개의 수상 실적을 올려 인센티브 63억 원을 확보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대회에서도 성과를 얻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과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난해 송파구 수상 실적 중 눈에 띠는 점은 세계대회 성과다. 글로벌 기업의 우수한 마케팅 성과와 홍보프로젝트 등을 평가하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출판물 혁신과 고객서비스 기술혁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금상 2개, 은상 1개를 수상했다. 또 송파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는 세계축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피나클어워즈’에서 무려 8년 연속(2012~2019)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각 분야별 대외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에너지 분야와 일자리 및 경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하며 송파구의 빌전 역량을 보여주었다.

또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3년 연속(2017~2019) 대상, ‘원스톱민원창구 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소통행정의 결실도 맺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화 분야의 공모 성과가 두드러졌다. 풍납동 토성지역이 강남 3구 최초로 ‘서울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 풍납동 일대가 2천 년 전 한성백제 시대로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례동 문화1부지에는 공연·예술을 테마로 한 7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시립도서관 분관’ 유치와 문정컬처밸리에 ‘동남권 시민청’ 유치의 성과가 있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창복 기자**

“馬不停蹄 자세로, 명품강서 완성”



▲노현송 강서구청장

■ 과 십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낙후된 외곽도시로 인식되고 있었던 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개발을 필두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면서 60만 인구가 넘는 서남권의 중심도시, 수도 서울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는 강서구가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강서구정이 어느덧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민선 5기와 6기를 거쳐 지난 10년은 긴 호흡으로 준비한 강서발전의 중장기 핵심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진 시기였다”며 “2020년은 1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마음가짐으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해 훈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서구, 올해 구정운영 로드맵 발표
안전한 환경·미래경제 등 핵심사업 구체화
살맞나는 ‘서남권 중심도시 강서’로 도약**

●구민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총력

새해에는 구민 모두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받은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인 생활안전보험을 첫 도입한다. 보험적 용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며, 자연재해 사망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이 보장 범위다. 보험관련 보장내용 및 청구문의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전문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강서 안전교육센터’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했다. 총 사

업비는 200억 원, 건립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3,780m²으로 자연재난, 교통안전 등 12개 체험시설과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구는 2022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과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안전도시위원회 및 사업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증진사업의 기틀을 마련한다.

●지역가치 더하는 ‘미래경제도시’ 조성
새해에는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한국교통연구원에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및 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하는 한편, 인접 지방정부와 실무협의회 등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기착공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간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조화로운 성장을 이끈다. 우선 역세권인 까치산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기준 지구단위계획 구역 20만 5510m²를 30만 208m²로 확대했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검토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회곡터널 주변은 2021년 강서 문예회관건립에 맞춰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까치산역 주변에는 강서유통단지 일대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아울러 마곡 R&D 강소기업 핵심거점 조성 및 공공사업지원시설 건립 운영 등을 통해 R&D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생태계를 조성한다. R&D센터, M-융합캠퍼스, 공공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마곡지구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또 CEO-Biz포럼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정착

2021년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강서문



예회관 준공에 맞춰 가로공원로를 품격있는 문화의 거리로 개발한다.

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축공사 시행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협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현재 건립 중인 LG아트센터, 스페이스-K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마곡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해 연결녹지, 가로공원, 문화공원 등 주변 상권과 연계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방화근린공원에는 천문우주관찰과 다양한 과학체험이 가능한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한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3층, 연면적 1,000m² 규모의 천문우주과학관은 천체투영관과 관측관을 비롯한 과학관련 전시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를 맞아 학교와 마을 간 연계를 강화하는 특성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관학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대안교실, 창의인성 체험학교 등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구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주권도시’ 기틀 마련

새해에는 5개 동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자치회를 전동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범 5개 동은 2020년 자치계획 실행 및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5개 동은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분과구성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

또 성장단계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주민 친화형 마을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과 통합공모사업 등 성장단계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친화형 마을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동별 주민자치회 대상 지역의 숙원사업을 발굴해 ‘강서형 자치분권 실행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박창복 기자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 자체 개발...억대 개발비용 절감

**행정혁신
예산절감
‘일석이조’**



▲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문제점이었던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GBP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GBP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이하, GBP)은 메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간편한 통합검색과 자동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구는 1월부터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 공개 데이터로는 인구 통계, CCTV 현황(위치), 생활인구(위치), 공중화장실(위치), 지하철이용(위치) 등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강동구에서 생산한 공공데이터를 서울시,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각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자료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강동구 공공데이터는 265 종 133만 3877건에 이른다.

구는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강동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치와 이미지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자동 집계 및 자동 차트 등 시각화 자료로 보여줄 계획이다.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제공해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였고, 연도 별 추이 또한 볼 수 있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객관적 지표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별도의 사업비 없이 행정안전부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과 자체인력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CCTV 우선 설치 지역을 분석해 기준과 다른 객관적인 의사 결정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구는 결과를 바탕

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빅데이터팀을 신설했다. 특히 직원 공모를 통해 인력을 배치해 GBP 자체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CCTV 우선 설치 지역을 도출하는데도 성공했다.

이는 스마트도시 기틀과 빅데이터 과학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행정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구는 GBP를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직원이 직접 개발함으로써 억대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구는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 적용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GBP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져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데이터 이해도 제고를 기대



으로 올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과정을 살펴보면,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 가장 시급한 5곳을 기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서 위치 등을 추가로 고려한 CCTV 설치 지점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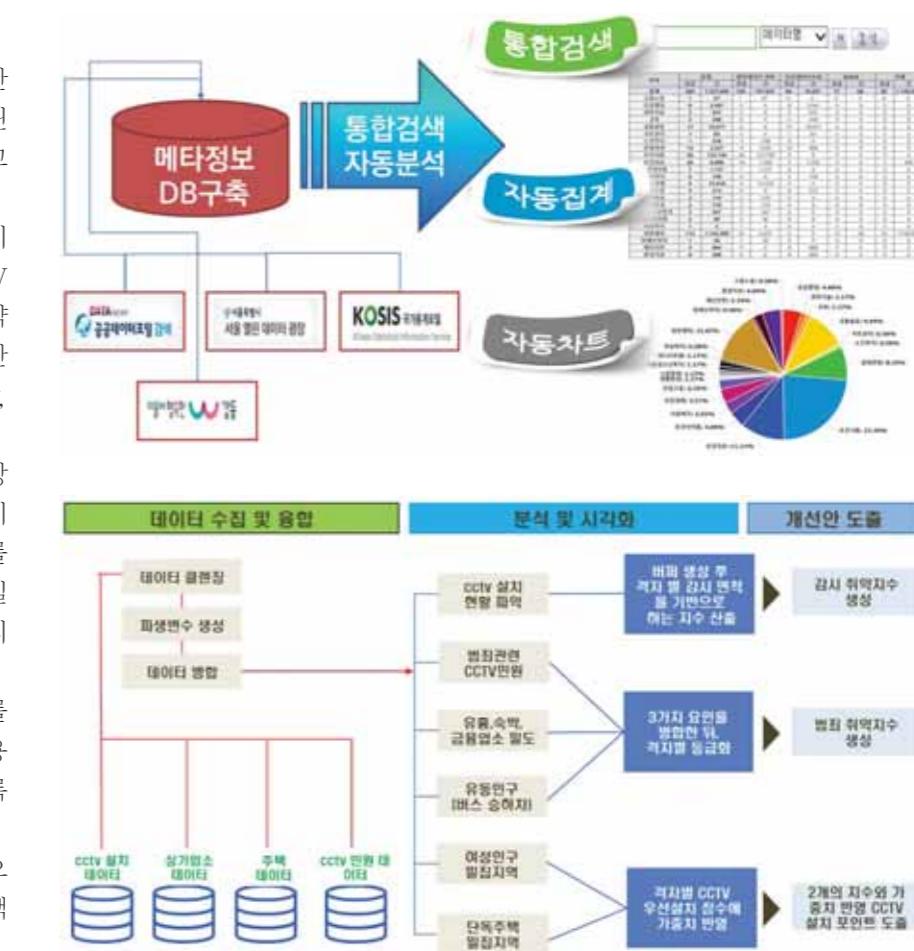
CCTV 1대 당 360도, 반경 50m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CCTV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시가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고 범죄 취약과 관련한 CCTV 범죄 민원, 상가 업소(유흥, 숙박, 금융),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했다.

또 범죄 강도 및 빈도가 높은 지역과 상가 업소(유흥, 숙박, 금융) 및 야간·심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여성 인구 밀도와 단독 주택 밀도가 높은 지역에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지수를 산출했다.

이로써 유료 데이터인 유동인구 데이터를 서울시 공공 데이터인 야간, 심야 버스 이용 인구로 대체하여 추가 예산 발생이 없도록 결과를 산출했다.

이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구는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 적용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GBP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져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데이터 이해도 제고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 자체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편리해지

는 행정 혁신을 지속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이신우 기자



광진구, 자양체육관·자양한강도서관 등 문화·체육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마음의 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생긴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양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 ‘자양문화체육센터’를 조성했다.

자양문화체육센터에는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양체육관과 자양한강도서관이 자리잡았다. 자양체육관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먼저 선보였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월~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양체육관 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과 탁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주민들을 맞았다.

자양체육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350m²으로, 다목적체육관과 로비, 락커룸, 샤워실 등이 들어섰다. 메인 공간인 다목적체육관에는 탁구장 12면과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배드민턴 6면과 관람석 96석이 마련됐다.

자양체육관에서는 기존 다른 구립체육관과 같이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종목은 배드민턴, 애어로빅, 요가, 줄바, 탁구, 키즈 발레 등 총 10개이다. 신청은 2월부터 홈페이지(<http://sportsgjsc.or.kr>)를 통해 가능하다.

운영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며, 매달 2,4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정기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스포츠클럽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체육관 대관 신청 접수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 대관 관련 사항은 광진구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대관은 토·



일만 가능하며 토요일은 낮(12~15시), 오후(15~18시), 일요일은 오전(9~12시), 낮(12~15시), 오후(15~18시) 대관 가능하다.

사용료는 3시간 기준 체육경기의 경우 22만 원, 체육경기 외에는 30만 원이고 사용료 외에 냉난방비와 음향기기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독서·문화 욕구를 채워줄 광진구의 다섯 번째 공공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도 지난 28일 문을 열었다. 자양한강도서관은 지상 3층, 1,650m² 규모로,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에 이어 지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구립도서관이다. 이 곳에는 북카페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이 배치됐다.

한강을 마주할 수 있는 옥상정원이 있어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현재 도서관에는 2만권의 개관도서와 370석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어린이, 성인 대상별 자료실 운영으로 맞춤형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북 스타트, 독서교실, 독서회 등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운영은 하절기(3~10월)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리고,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어린이자료실의 경우 계절 상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일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매월 2,4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이다. 기존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자양한강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매달 열린다. 2월에는 샌드아트 공연, 동화구연, 3D펜 체험하기 등 체험과 역사, 심리학, 음악 등 인문학 강연이 펼쳐진다. 자세한 사항은 자양한강도서관로 문의하면 되고, 강연의 경우 광진정보도서관 홈페이지(www.gwangjinlib.seoul.kr)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신우 기자

유덕열號 생활속 체감행정 더 촘촘해졌다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제작…출산지원금 확대 등 27가지 수록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20 경자년 달라지는
구정 정보 및 정부 정책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을 제작했다.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리플릿에는

▲복지 ▲교육 · 환경

▲보건 ▲경제 ▲안전 · 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7건이 수록됐다.

●복지

복지 분야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은 출산 지원금 확대,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이다. 동대문구는 종전 첫째아 출산 시 1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셋째아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시 30만 원으로 입학축하금을 확대하고, 중학교 입학 시 5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 원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집에는 유아(만 3~5세) 1인 당 간식비 월 1만 원을 지원하며,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5만 원씩 지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비도

종전 연 1,0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종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 환경

고등학교 3학년에만 지원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2, 3학년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됐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종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에게만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확대 지원된다.

이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휴대폰(ecopass.ddm.go.kr)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이 기존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를 시술비 횟수별로 차등지원한다.

●경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종전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변경되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화폐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며 할인율은 상품권 판매액의 7%다. 서울시 전 자치구 합산 300억 원 소진 시까지는 상품권 판매액의 10%가 할인된다.

●안전 · 행정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한도 100만 원)를 감면한다.

기존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전동퀵보드 등 전동보드의 최대무게(30kg)는 제한하고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을 구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개정했다”며 “구민들이 이번 리플렛을 통해 2020년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박창복 기자



동대문구, 작년 확보 외부재원 598억으로 도시재생 박차 지역 주거환경 개선·상생문화 구현·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난 2019년 한 해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민간기관 평가에서

59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 포

을 일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자리·복지·안전 등 정책 등에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상생문화 구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외부재원 확보

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다

방면에서 외부재원을 확보해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박창복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 정주환경 좋은 선순환도시·시민 모두 공정한 사회 등 구현

올해 살맛나는 포천 완성 속도낸다

● 취임 1년6개월여 포천 시정을 이끌어 온 소감은

지난해는 '도봉산~포천선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유치',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포천~화도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 등 대형사업을 유치하거나 착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확보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2020년 새해에는 정주 환경이 좋은 '선순환 도시',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잘사는 '공정한 사회', 기술과 시장, 그리고 시민이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 민선7기 후반기 주력사업과 임기내 완료가 목표인 사업은

먼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하여 포천시를 한반도 중심권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와 함께 만성정체 구간인 포천고속도로 신북IC-만세교 간 국도 43호선 확포장을 국가사업에 반영하고 수원산 터널공사와 하송우리-가산 간 지방도로 확포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2020년 한해도 지역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활SOC 등 핵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종 재정사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드론클러스터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포천시가 향후 전개될 신성장 분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포천공항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25일 포천시 공항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천공항 유치는 20여년 전부터의 꿈으로 알고 있다. 현재 추진상황과 전망은

취임 이후 시에 위치한 군공항 부지를 활용하여 민·군 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 초부터 사례분석,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용역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공항개발을 통해 포천시를 수도권 북부지역의 항공교통 중심지역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평화시대 남북경협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 포천양수발전소를 유치했다. 또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시발점인 포천양수사업소도 최근 개소됐다. 포천양수발전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

포천 양수발전소의 예상발전 설비용량은 750MW(원자력 발전소 1기 기준 75% 수준)로, 발전 효율 면에서 우수한데다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까워 송전선로 개설비용 절감 및 송전거리 단축에 따른 전력손실 감소 등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포천은 양수발전소 확정으로 총 7,982명(연간 1,140명)의 고용유발 효과는 물론 1조 6,839억 원(연간 약 2,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과 대안은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중점을 둔 일자리·교육·교통·주택·의료·문화·레저 등 복합적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인구 유입의 관건이며, 앞서 말씀드린 포천의 역점사업들이 바로 포천시 인구 유입의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격장 등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겼다. 대안과 해결방안을 위한 로드맵은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개별소송이 아닌 국가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의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법률에서 소음피해 및 보상기준 마련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 그간 피해지역 주민들의 합당한 보상을 위해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기 기자



▲ 새얼아침대화 2020 신년강연회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최근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2020 신년강연회'에서 '2020 시민과 함께 인천의 희망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인천유나이티드 FC 시무식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최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 FC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택상주 자세로 미래교육 준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최근 4층 원탁회의실에서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정책 방향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도교육감은 ▲배움과 성장을 돋는 혁신 미래 교육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책읽는 도시, 인천만들기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 운동 전개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교육 등 5대 인천교육 중점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택상주’의 자세로 인천교육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0년 동계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단 발대식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4층 원탁회의실에서 ‘임정로드 4,000km’를 답사하는 ‘2020년 동계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0 인천교육계획 발간 · 배포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2020년 인천교육정책 및 세부정책사업과 2019년 10대 성과 등을 담은 ‘2020 인천교육계획’을 발간·배포했다. 이번에 간행된 ‘2020 인천교육 계획’은 그간 발간했던 ‘주요업무계획’을 대신하는 것이다.



◀ 연천TMR,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경기 연천축산영농조합법인 연천TMR(대표 홍혁기)은 최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연천군청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연천TMR은 매년 설 명절을 전후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 및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김진호 기자



◀ 연천군 신서면 겨울놀이터 개장

경기 연천군 신서면 겨울놀이터가 최근 대광교 일대(대광리 1193)에 개장했다. 신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겨울놀이터는 인공 얼음빙판과 7개의 얼음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썰매장에는 30여 개의 썰매가 상시 준비돼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합동점검 실시

경기 연천군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확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몰지 및 울타리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연천군자원봉사단체 신년인사회 개최

(사)연천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정식)는 최근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0 연천군자원봉사단체 신년인사회’를 열어 화합과 희망의 새해를 다짐했다.



▲ 꿈나무자전거 BMX 선수단, 양양서 동계합숙훈련 실시

꿈나무자전거 BMX 선수단이 지난 1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사이클의 고장 양양BMX경기장, 양양종합운동장 웨이트장,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체력과 기초기술 등 동계합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 주최, 대한자전거연맹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진행되며 이 훈련을 통해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협강원지역본부, 양양군에 축산물세트 전달

강원 양양군청에서 최근 열린 '설 맞이 축산물 정 나눔 행사'에서 장덕수 농협강원지역본부장(왼쪽 두번째)이 김진하 양양군수(가운데)에게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축산물 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박명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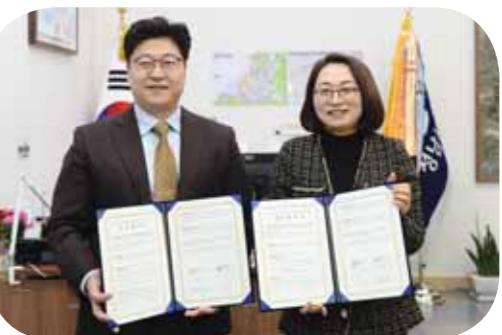
◀ 양양 송월막국수, 20년째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원 양양군 송월막국수(대표 윤복녀)는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송월막국수의 이 같은 선행은 20년째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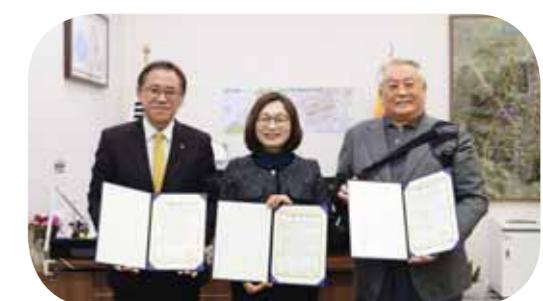
◀ “스케이트·눈썰매 타러 성남종합운동장 가자”

경기 성남시는 9년간 시청 야외주차장에 설치·운영하던 스케이트장을 이번 겨울부터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옆으로 옮겨 개장했다. 이들 2개 레포츠 시설은 2월 9일까지 58일간 문을 연다.



▲ 갈보리교회와 부설주차장 100면 공유 협약

경기 성남시는 주택, 업무시설이 밀집한 분당구 이매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교회와 손을 잡았다. 시는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웅조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부설주차장 100면 공유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 중원청소년수련관 작은도서관 재개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하대원동 240번지) 중원청소년수련관 4층에 있는 작은도서관(2007년 준공)이 리모델링으로 새로 단장해 1월 재개관했다.



▲ 성남시청 종합홍보관 새 단장

경기 성남시청 2층 종합홍보관이 최첨단 기술로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감 체험하는 시설로 개편돼 시민을 맞았다. 시청 종합홍보관은 최근 두 달간 4억2500만원이 투입돼 전체 825m² 면적 가운데 419m²를 리모델링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시간' '우리가 만들 어갈 미래' 공간이 새로 꾸며졌다. 김순남 기자



◀ 광주시-성남시,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협약

경기 광주시는 최근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성남시와 오포~분당 구간(판교 나들목~능원교차로 10.7km)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만호 기자



◀ 광주시, 새해맞이 기관단체 방문 실시

신동현 경기 광주시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12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신년인사는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농협 광주시지부 등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기관·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광주시, 2020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 광주시는 최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공인과 함께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박현철 시의회 의장, 최재석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인, 통리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광주시,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행사 성료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전통공원에서 개최된 ‘2020년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현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박관열·안기권·박덕동·이명동 도의원,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박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남한산성이 수도권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 부천국제만화축제, 5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년 연속 선정됐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이번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으로 경기관광공사로부터 홍보, 마케팅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받고 경기도로부터 최대 6,000만 원의 재정 보조를 받게 됐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최대의 만화축제로, 만화가와 만화산업 관계자, 만화 마니아들의 교류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함께 발전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만화,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는 1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기도 했다.



◀ 부천시-부천제일새마을금고, 좀도리 쌀 전달

경기 부천시는 최근 부천제일새마을금고(이사장 손수일)가 ‘사랑의 좀도리’ 쌀 전달식을 열고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돋는 데 사용해달라며 쌀(10kg) 600포를 기부했다. 1983년 6월에 설립된 부천제일새마을금고는 부천시 심곡동 지역의 상부상조 정신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역희망공헌사업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펼치며 오랜 기간 이웃돕기에 앞장서 왔다.

민창기 기자



◀ 선교교회, 부천시에 이웃돕기 기부금 기탁

경기 부천시는 최근 오정동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교회(담임목사 이석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기부금 200만 원을 시에 기탁했다. 박영호 장로는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전하고자 기탁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요 현안업무 보고

황범순 경기 의정부시 부시장은 최근 4개 권역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020년도 권역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부서장급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추진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이후에는 민원실을 포함한 각 부서를 순회하며 행정의 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진구 기자



◀ 설맞이 떡국잔치 행사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정부나눔축구봉사단은 최근 플루토뷔페에서 어르신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떡국잔치 행사를 가졌다. 새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호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정부나눔축구봉사단·플루토 뷔페의 주최하에 이호직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인사말, 효자양상을 음악공연, 공립가람어린이집 재롱동이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 양주시 신년인사회 '성료'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7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양주청년회의소(회장 박상민) 주관으로 '2020년 양주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년사와 케이크 절단, 건배제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의 출발을 다짐했다.

강진구 기자



◀ 옥정종합사회복지관, 2주년 개관기념식 개최

경기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춘배)은 최근 개관 2주년을 맞아 '함께해서 행복한 2주년'을 진행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식전공연, 기념영상 시청, 케이크 커팅, 주민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 의정부시,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전수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2019년 상반기 명예퇴직자 및 하반기 정년 퇴직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부포상은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재직 중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고, 공직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부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 회천4동,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경기 양주시 회천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의와 개최와 함께 제3기 회천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17명의 위원을 새롭게 재구성해 위촉했으며 최귀숙 위원을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의정부역, 의정부지하상가, 행복로를 중심으로 설 명절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지역자율방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귀성·귀경길 교통안전, 전기·가스 사고 예방,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 (주)진명여객, 양주시 어려운 이웃돕기 백미 기부

경기 양주시 (주)진명여객(본부장 유경종)은 최근 양주시청을 방문해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써달라며 백미 10kg 300포(7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학수 양주부시장, 유경종 본부장 등 진명여객 직원과 양주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기부받은 백미는 각 읍면동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가평군, 보남산 정상 새해 해맞이 행사 성료

경기 가평을 보남산 정상에서 1월 1일 가평중·고등학교 총동문회원 및 가평군청 공직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자년 새해를 밝히는 해맞이 행사를 열었다.

박승호 기자



◀ 정정화 제33대 가평군 부군수 임용

경기 가평군은 최근 군수실에서 제33대 정정화 부군수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



◀ 美40사단 부사단장, 가평고교 졸업식 참석

경기 가평고등학교 가이사체육관에서는 가평군수를 비롯해 미40사단 마이클 리니 부사단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 및 졸업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가평고등학교 졸업식이 진행됐다. 졸업식에 앞서 김성기 가평군수는 연영방 및 미국 등 한국전쟁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 가평에서 열릴 예정인 6.25전쟁 70주년 행사를 맞아 미40사단 마이클 리니 부사단장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 가평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기총회

경기 가평군은 최근 제2청사 통합교육장에서는 가평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 앞서 친환경 농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가평군수, 군의회의장 표창이 전달됐으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2,000,000원을 기탁했다.



◀ 유천호 강화군수, 새해 첫 주민과의 대화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강화읍을 시작으로 서도면까지 13개 읍·면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및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주민과의 대화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강화〉



◀ 강화군, 강화대교에 관문형 상징조형물 설치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강화도 진입 관문 역할을 할 관문형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화~서울 방향 강화대교 인근에 조성 예정인 관문형 상징조형물은 추정 공사비가 30억 원이고, 이달 16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디자인 및 설계 공모는 약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60일의 디자인 기간을 거쳐 최종 공모안을 제출하게 되며, 3월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선자 선정 및 당선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 협상권이 부여된다.



◀ 강화군체육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인천 강화군체육회는 최근 명진부페에서 체육회 임원, 이사, 회원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및 제3대 강화군체육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 강화군, 말라리아 퇴치 관·군 간담회 개최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군 보건소에서 관·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한반도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목표로 수립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에 따라 매개체 감염병 중 질병부담 1위인 말라리아를 선제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군부대인 해병2사단 5연대와 매개모기감시, 공동 방제활동, 환자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수원 장안구, 동절기 설해대책 간담회

이병규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2019년 동절기 설해대책 간담회에서 제설업무 관계자에게 제설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선식 기자



◀ 장안구 환경가족 송년오찬 간담회

이병규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장안구 환경가족 송년오찬 간담회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한 환경관리원들에게 격려말씀을 하고 있다.



◀ 영화동 서문경로당 개소

이병규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영화동 주민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서문경로당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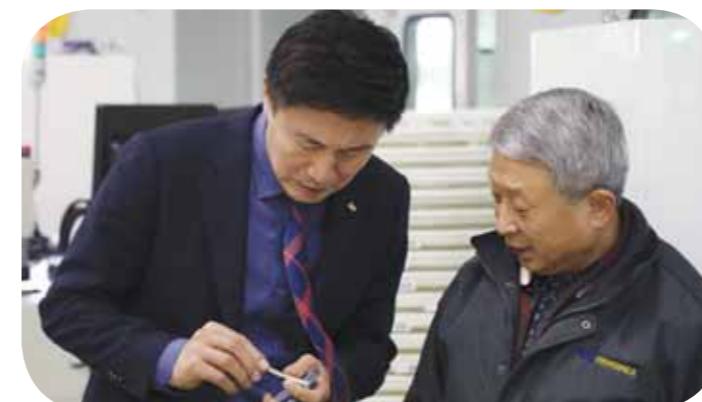
◀ 열린어린이집 서포터즈 간담회

이병규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열린어린이집 원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원 권선구,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방문

경기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최근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관을 둘러보고 있다. 박선식 기자



◀ 산업단지 (주)미경테크 현장탐방

경기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최근 관내 소재한 산업단지 (주)미경테크를 방문해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11개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경기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최근 구청장실에서 건설과를 시작으로 11개과의 2020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 수원남부소방서 방문 … 애로사항 등 청취

경기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최근 관내 안전을 책임지는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해 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제19대 권찬호 수원시 팔달구청장 취임

제19대 권찬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취임식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강조하며, 구민과 가까운 곳에서 빛나는 현장 행정으로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전했다.

박선식 기자



◀ 팔달구, 팔달노인복지관 방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대한노인회 수원시 팔달구지회(지회장 이병학)와 팔달노인복지관(관장 윤학수)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어르신 민심 살피기에 나섰다.



◀ 팔달구, 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서 소통행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팔달구 관내 주요 현안 지역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린이 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구민과의 소통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 우만1동서 '자치분권 실현' 홍보카드 섹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실현 홍보 카드 섹션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 송영완 수원 영통구청장, 취임 1주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공직자들이 함께 모여 송영완 영통구청장의 취임 1주년을 축하했다. 박선식 기자



◀ 영통구 '반기운 만남, 신년음악회' 개최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최근 구민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고 음악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20 반기운 만남,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



◀ 영통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취임식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최근 영통구의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 영통구, 새해 첫 전시로 '住토피아' 展 개최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최근 2020년 새해 첫 전시로 경기대 학생들이 기획·주관하는 '주(住)토피아' 展을 개최했다.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새해 맞아 구민 동행 현장방문 시작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구민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이 구청장은 구월1동 방문을 시작으로, 20개 동을 방문하며 격의 없는 구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불편사항은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요청해 달라”며 “구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인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위문

인천시 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의장 이강호, 부의장 임채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남동소방서를 비롯 군·경·소방 6개 유관기관을 찾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남동구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께 55만 구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정원근 기자



◀ 인천 남동구, 신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인천시 남동구는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실현을 위한 신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강호 구청장은 “민선7기 중반에 이르는 올해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 서구, 교통안전도시 원년의 해 힘찬 첫발

인천시 서구는 최근 ‘2020 교통안전도시 서구, 원년의 해 선포식’을 열고 서구를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힘찬 첫발을 냈다. 이재현 서구 청장은 “교통안전도시 서구, 원년의 해를 선포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을 갖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서구가 2020년 아심차게 추진하는 구민행복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했다. 맹창수 기자



◀ 서구,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시 서구는 올해 ‘교육하기 좋은 도시 서구’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인재 육성 및 소통·토론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84개 초·중·고 학교 교사 및 교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침을 밝혔다.



◀ 서구, 분야별 공적우수자 표창 수여

인천시 서구는 지난달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부분 등 표창대상자 60여명과 여러 측면에서 활동한 가운데 일괄 수여식을 했다. 이번 행사는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이루고자 복지 및 안전 분야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됐던 공적우수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공적분야로는 2019년 ▲모범 청원경찰, ▲장애인아동 보육사업 유공자,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지역복지 기여자, ▲일자리 창출 유공자 등이다.



◀ 서구 ‘행복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

인천시 서구는 최근 ‘2020년 경자년 합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신년회를 합동 개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클린서구에 기여하고자 야심차게 기획됐다. 이재현 서구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구 2020 행복 프로젝트 개막’을 선포했다. 구정 전 영역에 걸쳐 행복을 20% 이상 늘리는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프로젝트다. 부정적인 내용은 20% 줄이고, 긍정적인 내용은 20% 늘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별빛골목 방문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1·4동 인주대로 224번길에 조성된 별빛골목을 찾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골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원근 기자



◀ ‘번개탄 판매개선’ 마트에 복지부장관 표창 전달

김정식 인천시 미추홀구청장은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사업에 참여, 생명사랑 나눔 우수마켓에 선정된 학익동 그랜드마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표창을 수여했다. 그랜드마트는 번개탄을 판매할 때마다 자살예방 홍보문구 봉투를 사용하고, 번개탄과 함께 술 구매하는 고객을 관찰하거나, 자살시도 의심자를 경찰 등에 연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미추홀구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김정식 인천시 미추홀구청장은 구청 교육장에서 2019년도 미추홀구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열고, 33명에게 수료장을 수여하고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 미추홀구, 새해 시무식 개최

인천시 미추홀구는 대회의실에서 김정식 구청장, 간부 공무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시무식을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 동국제강 ‘설맞이 생활지원금·사랑의 쌀’ 인천 동구에 전달

동국제강 인천공장 및 동국제강 그룹 산하 송원문화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공장에서 2020년 상반기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허인환 동구청장, 최삼영 인천공장장, 송원문화재단 정목용 사무국장 등이 참석, 사업장 인근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층 이웃 80분과 점심식사와 더불어 성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최삼영 공장장은 “회사의 근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함께 있기에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회사의 조그만 정성이 어르신들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인환 구청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배풀어 주는 동국제강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 인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인천시 동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본격 유통에 나선다. 동구사랑상품권은 신협·새마을금고 본점 10개소에서 개인당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동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사용을 당부했다.



◀ 인천 동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인천시 동구는 최근 대상황실에서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허인환 구청장의 주재로 각 부서별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사항을 분석,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고남석 연수구청장, 洞행정복지센터 연두방문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구민이 만족스런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근 옥련1동을 시작으로 모두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참여계층을 다양화해 평소 구청장과의 대화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격의 없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했다. 방문 순서는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동춘1동 ▲동춘3동, 송도1동, 송도4동 ▲송도2동, 송도3동, 청학동 순이다. 맹창수 기자



◀ 연수구, 주민자치회 발대식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14개 전동 주민자치회 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자문기구 역할의 한계점을 넘어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2019년 연수2동과 송도2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동으로 선정했다.



◀ 연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여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20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유공 우수기관과 개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에 따르면 음식문화개선 우수 분야에서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춘천닭갈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으며, 위생수준향상 및 식중독예방관리 우수 분야에서는 스퀘어원이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표창 대상자들은 음식문화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위생등급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연수구민의 식중독 예방과 연수구의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 연수구,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날 연수아트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새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결의대회에 참석한 800여명의 공직자들은 '청렴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담은 청렴 서약으로 새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 결의문은 전 직원 대표로 동춘2동에 근무 중인 행정9급 남여직원(정승렬, 강영주)이 함께 낭독했으며 결의문은 구청장에게 전달됐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폐지수집 어르신 '사랑의 안전리어카' 전달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중구 본관 입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안전리어카'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흥인성 중구청장, 리어카 수령 어르신 8명 등 수리특공대, 켈리그라피봉사단,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흥인성 구청장은 "사랑의 리어카가 옮겨울 어르신들의 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쓰셔서 활동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중구, 문화유산종합관리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

인천시 중구가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보고회는 흥인성 구청장을 비롯 구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인 (주)에이치앤티 솔루션이 연구용역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흥인성 구청장은 "중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며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이 '개항문화도시 중구'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원근 기자



◀ 중구, 지역 학교장과 '교육협력체계 강화'

흥인성 인천시 중구청장이 지역 학교장과 맞손을 잡았다. 구는 두 차례에 걸쳐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초·중·고교 학교장과 함께 만나, 2020년도 중구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흥 구청장은 책 읽는 도시 인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지원사업을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안내했다. 또 인천 자치구 최초로 지난 12월30일자로 공포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및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지원사항을 설명했다.



◀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첫 공식회의

민선7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박형우 계양구청장)는 지난달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과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첫 공식회의를 했다. 협의회는 매월 인천 각 군구를 순회하며 인천지역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인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사용·수익허가 협약, 결식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시 및 군구 간 공무원 계획 교류 등을 인천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맹창수 기자



◀ 계양산 무장애길·계양산성 복원정비 현장방문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은 최근 계양산 무장애길 및 계양산성 복원정비 현장을 방문했다. 박형우 구청장은 임학공원에서 계양산성까지 연결된 무장애길 전체를 돌아보며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계양산 무장애길은 임학공원에서 계양산성까지 연결돼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도 편안하게 산림휴양과 역사탐방을 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계양산 유휴지를 활용해 자연친화형 인공폭포 및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계양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회

인천시 계양구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지난달 29개부서 및 보건소,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구정 운영 방침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사업 목표와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대규모 산업벨트 조성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계양의 역사를 담은 계양 산성박물관 개관과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의 추진 등이다.



◀ 계양구, 2020 새해 시무식 개최

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대강당에서 사회단체장, 구 산하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갖고, 2020년 새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무식은 공무원 윤리현장 낭독, 공무원 청렴선서, 신년사, 구민의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종료 후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참석자 전원과 신년인사를 나눴다.

서산 9 경 가자!

제1경 해미읍성

제2경 마예래삼존상

제3경 간월도

제4경 개심사

제5경 팔봉산

제6경 가야산

제7경 황금산

제8경 한우목장

제9경 삼길포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그 무엇이 됐던
군포가
답[答]입니다